

회중 관계 형성을 위한 DISC학교
DISC School for Congregational Relationship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허 응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ABSTRACT

DISC School for Congregational Relationship

Woong Heo

Mokcheon Church, Seoul

In this paper, we started with concerns about forming relationships within the chu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DISC School' seminar as a training method to build relationships within the church. First, we understoo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re the church was located and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hurch. Then,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satisfaction level of believers living their religious life within the church. Through the survey, you will be able to see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education. We want to show how it affects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after receiving education. This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that synthesized, organized, and analyzed related literature. First, we studied human existence. Next, we looked at the meaning of human relationships, and then looked at the academic and

general concepts of human relationships. Continuous research on human relationships was in progress, and we talked abou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human relationships in the church. And by looking at the changes in human relationship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Bible through examples of characters in the Bible, it highlights the need for relationship education to improve the relationship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church today.

The DISC psychological test was used as a tool for relationship education. Let's take a look at what DISC is and look at the four behavior types (initiative, sociable, stable, and cautious) that DISC refers to. And using DISC, we continued to explain the DISC school that is being conducted within the church. DISC school begins with explaining the theory of DISC and understanding what type of behavior the participating students have through a DISC test. Then, they form groups for each behavior type and share the pros and cons of each behavior type, while taking time to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each other.

This paper was able to discover how the psychological testing tool called DISC can be used to improve relationships so that a more abundant religious life can be had within the church. Through this thesis, you will understand yourself, understand others, and change the world with the character of Christ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국문초록

회중 관계 형성을 위한 DISC학교

허 응

목천교회, 서울

본 논문에서는 교회 안에 관계형성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 내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훈련 방법으로 ‘DISC학교’ 세미나를 진행했다. 먼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회의 현황을 파악했다. 그런 다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관계 교육의 중요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받은 이후에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관련된 문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기초로 했다. 먼저, 인간의 존재에 대해 연구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 인간관계의 학문적 개념과 일반적 개념을 살펴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교회 안에서 인간 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인간 관계의 변화가 성경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례를 통해 살펴보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 계선을 위해 관계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관계교육의 도구로써 DISC심리검사를 사용했다. DISC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DISC에서 말하는 네 가지 행동유형(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을 살펴본다.

그리고 DISC를 이용하여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DISC학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DISC학교는 DISC의 이론 설명과 함께 참여한 학생의 DISC검사를 통해 자신이 어떤 행동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각 행동유형별로 조를 구성하여 자신의 행동유형에 장점과 단점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DISC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목사의 평가와 DISC학교를 진행한 진행자의 평가, 그리고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평가했다.

특히, DISC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새가족과 직분자, 그리고 그룹의 리더 등 세 부류가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논문에 실었다. 질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얼마큼 도움이 되었는지, 그룹을 이해하는데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아쉬운 점과 앞으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물었다. 이를 통해서 DISC학교가 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본 논문은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을 위해 DISC라는 심리검사 도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교회와 밖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목 차

감사의 글	x
I.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C. 연구의 진행	5
D. 교회의 현황	6
II. 관계 형성의 이론적 기초	21
A. 인간의 이해	21
B. 인간관계의 이론	25
1. 인관관계의 의미	25
2. 인간관계의 개념	26
1) 일반적 개념	26
2) 학문적 개념	27

(1) 인간관계의 과학	27
(2) 산업상 인간관계	28
3. 인간관계의 본질	28
1) 바람직한 인간관계	28
2) 현대인이 형성하는 인간관계	29
4. 인간관계의 중요성	30
C. 인간관계 변화의 성경적 근거	31
III. DISC 학교 이론정리	34
A. 관계교육의 필요성	34
B. DISC란 무엇인가?	35
C. DISC 행동유형	37
D. DISC학교의 이해	56
IV. 프로젝트 계획과 실행	58
A. 프로젝트 설명	58
B. 교재의 내용 및 활용 방법	76

C. 프로젝트 구성	77
V. 결과 분석	79
A. 결과	79
B. 분석	79
C. 평가	89
1. 목사의 평가	89
2. 위원회의 평가	91
3. 참가자의 평가	93
VI. 결론	102
A. 요약	102
B. 제언	104
부록	107
참고문헌	134

표 목차

<표1> 서울시 구별 인구현황	8
<표2> 중랑구 및 면목3.8동의 10년간 인구변화 추이(2012~2021년)	9
<표3> 인구이동(중랑구 ← 타지역)	11
<표4> 인구이동(중랑구 →타지역)	11
<표5>동별 인구 및 세대	11
<표6>목천교회 성도 연령 분포도(2015년 기준)	12
<표7>목천교회 성도 연령 분포도(2023년 기준)	13
<표8> 설문지 양식	15
<표9>설문자 분석표	17
<표10> 설문 결과	18
<표11> 목천교회 주일예배 순서	19
<표12> 각 유형에 해당하는 단어	37
<표13>기질의 관계성과 일의 속도	39

<표14> DISC 유형별 특성	50
<표15> DISC 유형별 대인관계, 단체생활, 개선사항	54
<표16> 조장 모임 안내문	61
<표17> 세미나 안내 포스터	70
<표18> 세미나 신청서	71
<표19> 세미나 참여 대상	82
<표20>DISC세미나의 영향력	82
<표21>DISC세미나의 사회 영향력	83
<표22> 관계의 중요성	83
<표23> 강의 만족도	84
<표24> 성도를 대하는 태도	84
<표25> 그룹 분위기 기여도	85
<표26> 관계 개선 노력	85
<표27> 관계에 대한 거부감	86
<표28> 교회 밖 활용 정도	86

<표29> 교회 기대감	87
<표30> 전체 만족도	87
<표31> 타 세미나에 대한 기대감	88

감사의 글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함께 하신 지혜의 근본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학문의 도전을 주시며 논문을 지도해주신 김영래 박사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조병호 박사님, 성경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보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Lenord Sweet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로목사로 은퇴하기까지 목사의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 허종필 목사님, 어머니 김은영 사모님, 사위를 위해 늘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송옥숙 집사님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목양 사역에 7년 동안 함께 했던 목천교회 성도들과 사역의 분주함에도 학비를 지원해주시며 학업을 배려해 주신 목천교회 김상원 위임목사님과 당회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성악하는 기쁨보다 목사 아내로서 기도로 내조하며 공부하는 남편 곁에서 학문의 동반자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김민희 박사, 질풍노도의 시기를 의젓하게 지나고 있는 큰 딸 윤, 귀여움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막내 경이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년 2월

허 옹

제 1 장

서 론

A.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지으신 것은 이러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다. 먼저 지으신 동산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동산에 두셨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았다. 혼자 있는 그를 위해 사람 곁에 또 한 사람을 만드셨다. 그때부터 사람은 인간(人間)이 되었다. 사람과 인간이 같은 의미인 듯하지만,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 의미는 다르다.¹ 생각과 언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 또 다른 생각과 언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을 만나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이 동산에서 지내던 이후에 이제는 두 인간이 동산에서 사회를 이루며 살게 된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 안에서 그들의 사회 안에서 각자의 삶과 생애를 보여주고 있으며, 회로애락의 반복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통해 틈틈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예수님도 성경 안에서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는

¹ 국립국어원 표준 대사전에서 사람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이라고 정의하며, 인간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이라고 정의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하셨다. 봉사하며, 선을 행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인간을 관계 속에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남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도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 살기를 요구하셨다.²

가정은 최소 단위의 사회이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이라는 사회를 이루게 되고, 그 사회는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사회도 확장되었다. 사회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갈등의 요소도 생겨날 개연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담의 가정에서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렇듯 어느 사회에서든지 갈등의 요소는 늘 잠재되어있다. 가정으로 시작된 사회구조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사회구조가 교회다. 교회는 가정의 확장된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다. 교회란 한 명이 아니라 무리를 지칭하는 말이다.³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도들 사이에서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려는 노력은 반대로,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계성이 곧 최우선으로 돌봐야 할 목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능력이나 기능성이 약화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²정병운, 『치유목회에 있어서 목회자의 인간이해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29.

³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2장 교회 제7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며, 성령의 전(고전 3: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 교회가 변화하는 동안 여러 사회의 이슈가 있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해방과 함께 전쟁이라는 아픔과 산업화를 겪으면서 인권의 유린, 그 이후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세계화를 이루어 가면서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변화와 그 기능이 점차 약화 되었다. 젊은 후기 근대의 세대들은 권위에 저항하고 이성에 저항하며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⁴ 인간 상호 간의 결속감과 소속감은 약화 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되었다.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인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관계 붕괴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을 거치지 않는 정보 습득에 따른 관계 단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 간의 유대가 약화 되고 있다. 그것은 곧 건강한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무리와 함께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시대적 상황은 교회 안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과는 반대로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도들 간의 이질적인 모습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구성원이 되면, 인간과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회에 처음 등록하면 이미 다니고 있는 성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일과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다가 항존직의 직분을 받아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면서 관계를 형성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확장되고 그룹의 지도자가 되어 구성원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온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일도 있으나, 때로는 갈등과 심하게는 분열의 경험을 겪기도 한다.

⁴ 임성빈, “21세기의 문화와 청년,” 『21세기 문화와 청년목회상담』 (서울: 장신목회상담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0. 9.), 4.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역의 현장과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해야 한다. 교회는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지역 주민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 전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교육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성도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지식은 전문가에 의해 연구되고, 학문의 분야로 구분되어 책 속에 저장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제 지식은 유동적인 무형의 실체로 어떠한 것에 적용과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⁵ 이를 위해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성도들에게 실제로 교육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계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DISC 심리검사 이론을 기반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런 상황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은 개인적인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친밀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문헌 연구를 통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의 성격을 연구하고 연구 자료를 토대로 목천교회 장년 3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관계 세미나를 운영하여

⁵ 김영래, “미래세대와 인식론,” 『미래시대, 미래세대, 미래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6.), 68.

성도들 간의 행동유형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관계 개선을 얻어내고자 한다.

1장에서는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말한 다음, 연구자가 시무했던 목천교회의 상황을 기술한다.

2장에서는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의 이론적 기초인 인간의 이해와 인간관계의 이론을 살펴본 다음,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논문과 서적, 그리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도록 한다.

3장에서는 DISC를 통한 관계 훈련을 위해 관계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DISC의 4가지 행동유형을 살펴보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DISC 학교에 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목천교회 장년층 3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관계 세미나’를 통한 교육 교재의 내용을 삽입했다.

5장에서는 결과 분석적인 단계로 참여 대상의 결과와 세미나 이후의 성도들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인터뷰, 평가와 배운 점 등을 제시한다.

C. 연구의 진행

목천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하면서 단순히 세미나의 내용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안은 장차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함으로써 함께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튼튼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먼저는 교회 안에 구성된 많은 공동체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면서 모든 성도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육은 목회 전반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과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그리고 영적인 세겉줄을 이루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희망하면서 논문의 연구와 진행 과정을 갖고자 한다.

D. 교회의 현황

연구자가 시무했던 목천교회⁶가 위치한 곳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이다. 중랑구는 망우산을 중심으로 삼각점이 되는 봉화산과 용마산 지역에 구석기, 청동기 시대의 각종 유물이 출토되어 중랑지역의 역사는 기원전 3만 년 후기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한강 유역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으며,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초 983년 전국에 12목을 설치하면서 양주목이 되었다. 1663년(조선 현종 4년)에 허목에 의해 쓰여진 한성목장지도 중 진현마정색도를 보면 불암산을 배경으로 남으로는 한강을, 북으로는 아차산을, 서로는 중랑천·청계천 일부·신촌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그 경계가 명확지 않으나 지금의 광진구와 중랑구를 포함하고 있어 중랑 일대가 한성 목장 지대임을 알 수 있다.⁷

⁶ 본 연구자가 시무했던 교회이며, 시무지를 떠난 이후 논문을 작성했으므로 교회에 관한 현황 중 일부는 같은 교회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강휘규 목사의 논문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를 연결하는 전인적 세대통합교육공동체 사역을 위한 연구 :서울목천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를 참조한 것임.

⁷ 중랑구 연혁, <https://www.jungnang.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54> [2023. 10. 16. 최종 접속]

서울시 동쪽의 망우산을 중심으로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과 고양군뚝도면의 일부였다가 1949년 8월 15일에 고양군의 면목리가, 1963년 1월 1일 양주군 구리면의 상봉, 신내, 망우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다.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이 있다가 2008년 1월 면목3동과 면목8동을 면목3·8동으로, 망우1동과 망우2동을 망우본동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마지막 개편이 있었다. 주변에는 면일초등학교와 서일대학교가 있으며, 교회는 큰 도롯가에 있다. 행인이나 차량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 위치를 설명하는데 쉽다. 교회 주변에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과거 봉제산업의 발달로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소규모 봉제공장은 간혹 눈에 띄는 정도이다.

중랑구의 인구는 뚜렷한 감소세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2만여 명이던 인구수는 2020년에 39만 명, 2023년에는 385,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감소로 보면 2011년 대비 38,000여 명으로 10% 감소했다 최근 2020년과 비교하면 약 1만여 명이 줄어들었다.⁸

한때 상봉터미널을 중심으로 활발한 지역 상권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터미널을 폐쇄하는 것을 포함한 중장기 개발 계획이 나온 상황이며, 1985년 문을 연 상봉터미널은 2023년 11월 30일 최종 폐업했다.⁹ 연령별 인구 분포에도 노인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아래 표에서 살펴보듯이 서울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인구가 높은 지역은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순이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높은 지역은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순이다.

8

서울특별시중랑구기본통계,

https://stat.kosis.kr/nsibsHtmlSvc/fileView/FileStbl/fileStblView.do?in_org_id=507&in_tbl_id=DT_507001_FILE2022 [2024. 2. 1. 최종 접속]

⁹ "일평균 이용자 20명도 안돼"...상봉터미널 '폐업', <https://v.daum.net/v/20231106083306126> [2024. 1. 24. 최종 접속]

<표1>¹⁰ 서울시 구별 인구 현황 (2022년 기준)

	서울시 인구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백분율(%)
소계	9,667,669	1,667,411	17.2
종로구	152,211	27,958	18.4
중구	130,785	25,055	10.7
용산구	233,284	39,037	16.7
성동구	288,234	47,720	16.6
광진구	351,252	54,071	15.4
동대문구	353,601	64,468	18.2
중랑구	390,140	74,920	19.2
성북구	441,984	77,475	17.5
강북구	297,702	66,307	22.3
도봉구	313,989	66,998	21.3
노원구	508,014	92,040	18.1
은평구	470,602	89,650	19.0
서대문구	319,554	55,996	17.5
마포구	375,585	55,914	14.9
양천구	444,010	72,393	16.3

¹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고려자 현황, <https://data.seoul.go.kr/dataList/10020/S/2/datasetView.do> [2023. 7. 19. 최종 접속]

강서구	574,638	97,128	16.9
구로구	418,418	75,890	18.1
금천구	242,818	42,928	17.7
영등포구	398,085	64,810	16.3
동작구	390,432	68,231	17.5
관악구	501,226	82,447	16.4
서초구	408,451	62,347	15.3
강남구	534,103	81,715	15.3
송파구	664,514	103,573	15.6
강동구	464,037	78,340	16.9

<표2>¹¹중랑구 및 면목3.8동의 10년간 인구변화 추이(2012~2021년)

	중랑구			면목3.8동		
	인구(명)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명/km)	인구(명)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명/km)
2012년	423,656	46,476	22,888	29,569	3,467	17,706
2013년	421,237	48,998	22,757	29,121	3,593	17,438
2014년	423,411	51,995	22,892	28,695	3,733	17,183
2015년	418,620	54,095	22,633	28,620	3,941	17,138

11

서울특별시중랑구기본통계,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ata?statsConfmNo=507001&inputYear=2023> [2024. 2. 1. 최종 접속]

2016년	415,677	55,914	22,474	28,137	4,081	16,849
2017년	412,780	59,262	22,318	27,685	4,271	16,578
2018년	408,147	61,830	22,067	27,139	4,451	16,251
2019년	402,024	65,164	21,736	26,589	4,657	15,922
2020년	399,562	69,447	21,603	25,995	4,912	15,948
2021년	399,562	69,447	21,603	25,995	4,912	15,948

이러한 중랑구 전반의 인구 추세는 교회가 위치한 면목동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더 특이할 점은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아래 표를 보면 면목3.8동의 인구는 중랑구 전체 인구의 6.4%에 해당한다. 그것은 중랑구 동별 평균보다 약 1만 명 가량 많은 수치다. 면목3.8동의 거주자 인구밀도 역시 중랑구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과거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 정착하던 동네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서 경제적으로 회복되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래 표를 보면, 중랑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눈에 띄는 정도로 많은 것을 수치로 알 수 있다.

<표3>¹² 인구이동
(중랑구←타지역)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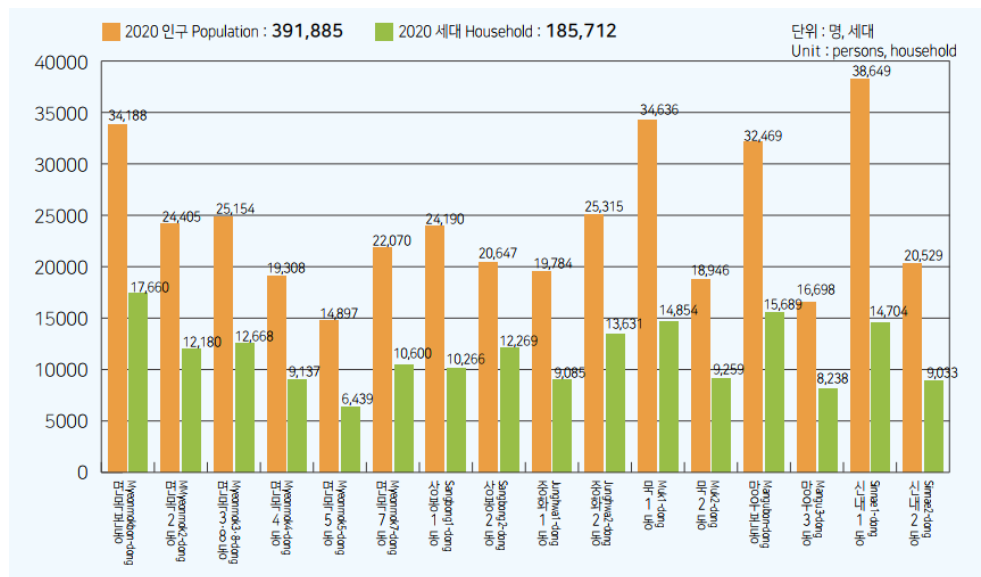
	계 Total		
	남 Male	여 Female	
2016	60,566
2017	56,385	28,421	27,964
2018	54,168	27,105	27,063
2019	49,446	24,974	24,472
2020	60,214	29,646	30,568
2021	52,867	26,090	26,777

<표4>¹³ 인구이동
(중랑구→타지역)

단위 : 명

	계 Total		
	남 Male	여 Female	
2016	64,823	32,370	32,453
2017	59,947	30,185	29,762
2018	59,616	30,062	29,554
2019	55,932	28,388	27,544
2020	62,212	31,129	31,083
2021	57,957	28,986	28,971

<표5>¹⁴동 별 인구 및 세대



중랑구의 경우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인근 지역인 구리나 남양주로 이주하는

¹² “주민등록 전입지별 인구이동” 『제34회 중랑통계연보』 (서울: 중랑구청, 2022), 64.

¹³ 『제34회 중랑통계연보』, 64.

¹⁴ 『제34회 중랑통계연보』, 64.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아있는 주민은 평균적으로 중산층 혹은 그 이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이다. 목천교회는 중랑구 경내 면목동에 있다. 1977년 5세대 20명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매년 출석 성도 통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 표를 보면 서울 외곽으로 이주 현상과 함께 성도 숫자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고령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표6> 목천교회 성도 연령 분포도(2015년 기준)¹⁵

2015년	남자(명)	여자(명)	계(명)	총비율(%)	비고
0~9	41	43	84	7.3%	다음 세대 237명(18%)
10~19	63	90	153	13.3%	
20~29세	62	54	116	10.1%	20~69세 715명(65%)
30~39세	39	71	110	9.6%	
40~49세	57	99	156	13.6%	
50~59세	62	96	158	13.7%	
60~69세	54	121	175	15.2%	
70~79세	47	80	127	11.1%	70세 이상
80~89세	13	42	55	4.8%	고령자
90~99세	2	12	14	1.3%	196명(17%)
총계	440명	708명	1,148명	100%	

¹⁵ 『2015년 목천교회 정책당회 자료집』(서울: 목천교회, 2015), 46.

<표7> 목천교회 성도 연령 분포도(2023년 기준)¹⁶

	남자(명)	여자(명)	계(명)	총비율(%)	비 고
0~9세	33	24	57	6.2%	다음세대 165명(18%)
10~19세	52	56	108	11.8%	
20~29세	42	51	93	10.2%	20~69세 522명(57.1%)
30~39세	33	35	68	7.5%	
40~49세	34	67	101	11.1%	
50~59세	40	83	123	13.4%	
60~69세	49	88	137	15.0%	
70~79세	41	92	133	14.6%	70세 이상
80~89세	22	47	69	7.5%	고령자
90~99세	1	24	25	2.7%	227명(24.8%)
총계	347명	567명	914명	100%	

본 연구에 앞서 성도들의 관계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19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들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현장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로서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등의 교회 전반적인 사역에서 대체로 호의적인 편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교회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연령대를 선정해서 실시하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라는

¹⁶ 『2023년 목천교회 정책당회 자료집』(서울: 목천교회, 2023), 25.

상황 때문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성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표8> 설문지 양식

<목천 교회 장년 설문지>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출생년도는? 19_____년도
3. 귀하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_____년부터
4. 목천 교회에 언제부터 출석하셨습니다? _____년부터
5. 귀하의 직분은?
 ① 장로 혹은 안수집사 ② 권사 ③ 서리집사 ④ 평신도
6. 귀하는 목자인가 목원입니까? ① 목자 ② 목원

※ 아래 문항을 읽고 오른쪽 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 사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나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2	(주일 예배를 드릴 경우) 매주 드리는 예배가 내 삶에 큰 힘이 되며 영향을 미친다.				
3	내가 참여하는 목천교회 예배와 기도회는 몇 회정도 되는가?	5회 이 상	3회	2회	1회
4	나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				
5	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6	나는 목자와 목원이 만나는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7	목장 모임에 나가면 그곳에 나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8	나는 말씀(성경도착) 읽기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9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된다.				
10	나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한다.				
11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즐겁다.				
12	새벽기도회를 통해 기도한다.				
13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마련하여 기도한다.				
14	현재 교회 안에서(중으로) 한 가지 이상의 교육(행카, 큐인, 어성경 등)을 받고 있다.				
15	나는 성경공부 그룹에 참여하며 배우는 것이 좋다.				
16	나는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의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17	나는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즐겁다.				
18	우리 교회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임이 있다.				
19	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				

• 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_____

설문 대상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설문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는 20년 이상 목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응답자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그것은 현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의 대부분이 현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이어지는 교회 이동 횟수에 관한 질문의 답을 보면 없거나 3회 이하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5회 이상 교회를 이동한 설문자 가운데는 사역지 이동이 불가피한 교역자가 포함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성도는 거의 교회를 옮기지 않고 정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표9> 설문자의 분석표

목천교회

I. 교인에 대한 조사

	항목	빈도(응답)	유효퍼센트	
1	성별	남성	44	38.6
		여성	70	61.4
		합계	114	100.0
2	연령	30대 이하	11	9.9
		40대	25	22.5
		50대	45	40.5
		60대	20	18.0
		70대 이상	10	9.0
		합계	111	100.0
3	학력	중졸이하	2	1.8
		고졸 이하	22	19.5
		대졸이하	78	69.0
		대학원이상	11	9.7
		합계	113	100.0
4	직분	장로 혹은 인수집사	29	25.9
		권사	23	20.5
		서리집사	49	43.8
		평신도	11	9.8
		합계	112	100.0
5	신앙기간	20년 미만	20	18.5
		20년 이상	43	39.8
		40년 이상	26	24.1
		50년 이상	19	17.6
		합계	108	100.0
6	출석기간	10년 미만	30	27.5
		10년 이상	45	41.3
		20년 이상	22	20.2
		30년 이상	12	11.0
		합계	109	100.0
7	교회 이동	1.00(이동 없음)	14	12.3
		2.00	26	22.8
		3.00	41	36.0
		4.00	18	15.8
		5.00	8	7.0
		6.00	3	2.6
		7.00	1	0.9
		8.00	1	0.9
		9.00	1	0.9
		13.00	1	0.9
		합계	114	100.0

<표10> 설문 결과

II. 기술통계

	N (응답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지도력’부터는 백분위 환산점수)
연령	111	20.00	82.00	53.2432
신앙기간	108	1.00	70.00	35.4444
출석기간	109	1.00	56.00	16.4220
몇번째교회인지	114	1.00	13.00	3.1228
지도력	91	29.17	100.00	78.4799
사역	98	50.00	100.00	75.8503
영성	89	54.17	100.00	73.8296
조직	98	45.83	100.00	75.9354
예배	100	41.67	100.00	79.5417
소그룹	100	50.00	100.00	77.4167
전도	96	50.00	100.00	73.7413
관계	89	50.00	100.00	72.5187
설교	101	37.50	100.00	78.6304
교육	98	50.00	100.00	76.3180
전체평균	74	55.00	99.58	77.1959
유효수 (목록별)	68			

백분 점수로 환산한 항목을 분석해 볼 때 전반적인 점수는 80점을 밑도는 수준으로 높은 점수는 아니다.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다. 응답 항목 가운데 예배, 설교, 교육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목천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 전통 예배 형식에서 열린 찬양 형식을 도입했다. 온 성도들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중 찬양의 비중을 높였다. 절기에 맞추거나 설교의 내용에 맞는 찬양을 선곡하고 함께 부르면서 예배한다. 이런 차별 있는 예배 형식은 교회를 처음 방문한 새가족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표11> 목천교회 주일예배 순서

■ 주 일 예 배 ■		
1부 7:30, 2부 9:30, 3부 11:30		
[인도] 1부: 이미라 목사 2부: 강휘규 목사 3부: 허 웅 목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환 영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함 께
고 백의 기도	다 함 께
침 목 기도	다 함 께
용서의확신	인 도 자
찬 양	찬292, 창조 의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함 께
기 도 1부 이경식 집사 / 2,3부	윤성준 장로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24:36-44	인 도 자
특 송 (2,3부 예배)	찬 양 대
말 씬 선 포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김상원목사
*봉 헌 175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교 회 소 식	설 교 자
축 복 송 성전을 떠나가기 전	다 함 께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교육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적용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목회 정책이 성도들의 만족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관계 면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 72점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목회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되는 지도력에서 최하점 29.17점, 설교에서 37.5점을 주기도 했다. 전체 평균 77점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 설문 결과는 앞으로 목천교회가 목회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영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연구 논문이 이와 같은 성도들의 현실에서 어떻게 관계 교육이 얼마큼 영적 성장에 영향을 주며, 성도들의 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 II 장

관계 형성의 이론적 기초

A. 인간의 이해`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대상을 먼저 이해한 다음 그들의 개선되어야 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교육의 방향이 수립되면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분량의 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한 후라면 훨씬 질 높은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요즘 매체를 통해 특정 심리검사를 통한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심리검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고사하고 인간의 이해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치유와 회복이 아닌 회자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락의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계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격을 알지 못한 이유도 있다.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많은 관계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서의 관계는 성도(聖徒)라는 영적인 직책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은 인간 본연의 성품과 심성을 갖춘 다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교육 계획이 수립되고 교육을 시행한 이후 바람직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문화, 종교, 인종, 정치 등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모든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인간의 이해는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고찰하면서 인간의 상태를 이해해 보도록 한다.

1.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이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과정에서 설명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창1:26-27).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했다(고후4:4). 신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있고 인간을 도덕적 책임과 지성이 있는 인격적 피조물로 묘사하고 있다.¹⁷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연구와 다양한 학문적 견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시다(요4:24,

¹⁷박학규, 『한국교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1995), 188.

딤편6:16).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연합하여 형상을 이룬다.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둘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의지의 독립권을 부여하셨다(창2:17). 이와 같은 이유로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발생하는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된다. 셋째, 의와 거룩함이다. 인간의 도덕적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되어 있다. 인간이 창조될 때 형성 조건 가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다(엡4:24). 마지막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로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해 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시킬 수 있다(골3:10).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논의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직접 손으로 빚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넣자 생명(生靈)이 되었다. 이처럼 다른 피조물과의 창조과정이 다른 것을 본다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2. 가톨릭 교회의 인간의 이해

가톨릭교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합리적 성품과 도덕적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한다.¹⁸ 가톨릭교회는 창조 사건에서 나오는 형상과 모양을 분리해서 설명한다. 가톨릭 신학은 그 “형상”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의

¹⁸ 서철원, 『인간, 하나님의 형상』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66.

유비”(存在의 類比, analogy of being)론에 따라 이해한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은 각각 다른 정도에서 “존재”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석한다.¹⁹ 인간이 타락한 원인을 인간 구조에 두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사건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견해는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칼빈의 인간 이해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본성의 탁월성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본성을 모든 생물보다 뛰어나게 만드셨다는 원리를 지지한다.²⁰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이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해야겠는데, 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그의 공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하고도 탁월한 모범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맨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명확하고도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²¹

결국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에 의한 인간 본성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회복의 본능이 있으며, 회복의 훈련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포함하는 말이다.

¹⁹ 박학규, 『한국교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 188.

²⁰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227.

²¹ Ibid., 221.

B. 인간관계 이론

1. 인간관계의 의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에덴동산 이후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살아간다.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만나 진실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므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주요한 타인, 나아가서 인간 일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²² 니체는 모든 인간은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단지 좋은 예술가와 좋지 않은 예술가가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극복과 자기 창조가 선행되어야 한다.²³ 타인은 어떤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나의 말과 행동이 그에게 어떤 영향과 변화를 주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인간관계는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된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특성 그 이상의 독특한 현상이 일어난다. 각자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⁴ 결국, 인간관계는 개인과 개인이 상호작용을 이루어 나가는 사회화 과정이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그 관계에 속한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건강한 성격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끼리

²² 김민희,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관점에서 본 축제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21, 37.

²³ Ibid., 38.

²⁴ 이재열, 『생활속의 인간관계론』 (서울: 북코리아, 2009), 23.

이루어지는 상호관계가 작용하여야 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화합을 통해 상호 간에 더욱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²⁵

2. 인간관계의 개념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이 형성하는 심리적인 관계에서 나아가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수반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다각도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1) 일반적 개념

모든 사람에게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어릴 때는 그 시기에 알맞은 좋은 양육 환경이 필요하고, 공부할 때는 그 시절에 필요한 열정과 지혜와 환경이 갖추어 있어야 하고, 일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많은 경험과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겪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쌓아 놓은 공든 탑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²⁶ 그 모든 과정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진행된다. 일반적 개념의 인간관계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미로 사람과 사람의 심리적 관계, 대인관계, 인화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⁷ 대인관계로도 일컫는 인간관계는 특별한 목적과 목표 없이 형성되는 심리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나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이다. 한편 대인관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인간관계는 사람이 사람을 대면하는 경우에 개인의 언행과

²⁵ 김혜숙 외 4인, 『인간관계론』 (서울: 양서원, 2008), 15.

²⁶ 유영창, 『하나님의 사인』 (서울: 쿰란출판사, 2021), 296.

²⁷ 윤대혁, 『인간관계론』 (서울: 삼영사, 2004), 47-48.

태도에 관심을 두고 형성되는 상호관계를 말하며 사람과 사람의 상호관계로 규정짓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과 개인의 교양과 개성 수준의 정도 및 대인적 교섭과 수용 태도에 치중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⁸ 인간관계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그룹에서 구성원 간에 교류되는 심리상태이다. 즉 특정 개인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과 잠재 능력 및 탁월한 융화성이나 지도력의 결과로 목표지향적인 인간관계 상태와 심리적 태도를 조성하여 집단의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²⁹ 사람 사이 심리상태의 교류라고 하는 감정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감정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다.

2) 학문적 개념

인간관계의 일반적 관계에서 많은 학자에 의해 학문적으로 관계를 정립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끼리의 관계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학문적 개념에서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의 과학과 산업상의 인간관계로 설명된다.

(1) 인간관계의 과학

인간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끊임없이 여러 방면에서 인간관계를 분석하며 개선해 나아가도록 연구해왔다. 인간관계는 광의와 협의로 구분된다. 광의의 인간관계 과학은 경제,

²⁸ 노중균, 『인간관계론』 (서울: 산문출판, 2009), 2.

²⁹ 장성화, 『쉽게 풀어 쓴 인간관계론』 (서울: 동문사, 2009), 13.

노동경제학, 정치학, 법학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반대로 협의의 인간관계는 심리학을 기초로 하는 산업사회학, 사회인류학 및 임상 심리 등의 학문을 포함한다. 이처럼 인간관계 과학은 여러 인접 과학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 행동과 욕구 및 심리상태와 변화 과정 등을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분석, 연구하여 진의를 파악하는 기술적인 학문이다.³⁰

(2) 산업상 인간관계

산업상 인간관계는 조직을 경영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에서 인간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조직 안에는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동시에 다른 개인 차이와 욕구 및 이에 수반하는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직 내 현실 그대로의 인간관계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³¹ 현실 그대로의 인간관계를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 공정상 기술적인 의미에서 상호의존적, 협동적 관계가 있어 기술적인 인간관계, 사회규범과 같이 조직상의 규정이나 제도에 의하여 형성되는 직무관계인, 인간 상호 간의 일상적인 인간접촉을 통해서 확립되는 비공식적 인간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³²

3. 인간관계의 본질

1) 바람직한 인간관계

인간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개인의 옆에는 타인이

³⁰ 이재열, 『생활속의 인간관계론』(서울: 북코리아), 28.

³¹ 장성화, 『쉽게 풀어 쓴 인간관계론』, 14.

³²유기현, 송병선, 권용만, 『인간관계론』(서울: 무역경영사, 2008), 11-12.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 생각이 이루어지고, 생각의 결과로 행동이 일어난다.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 등은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³³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져야 함을 경험해야 하지만,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을 오히려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각종 매체에서 보도되는 범죄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2) 현대인이 형성하는 인간관계

지금 현대인은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점차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인간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겨를이 없다. 그 결과 인간은 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지내게 되고, 진정한 인간관계는 단절되면서 소외감과 외로움, 고독에 빠져들어 더욱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현대인의 병리도 많은 부분 이러한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외감에서 비롯된다.³⁴ 개인주의적 성향뿐만 아니라, 만능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는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기적인 성향은 자기중심적이며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를, 쾌락주의 사고는 도덕의 상실로 인간의 타락을 가속 시킨다. 물질만능주의는 인간관계를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며, 타인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으로 현대사회는 관계의 단절 속에 냉랭한 사회로 점차 변해간다.

³³ 유수현 외 4인, 『인간관계론』, (파주: 양서원, 2009), 11.

³⁴ 조선화 외 7인, 『인간관계론』, (서울: 교문사, 2007), 74-75.

4. 인간관계의 중요성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이든지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중요하다. 인간(人間)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누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좋아하든지 혹은 싫어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성은 우리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한 측면인 동시에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³⁵ 타인과의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무수한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³⁶

그리스도인에게 인간관계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대(對)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예수님은 두 계명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진다. 반대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인간관계는

³⁵노중균, 『인간관계론』, (서울: 산문출판, 2009), 6.

³⁶윤대혁, 『인간관계론』, (서울: 삼영사, 2004), 39.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지표가 된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웃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안에 관계의 어그러짐이 있다면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와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셨다. 세 번의 확인을 통해 관계가 회복된 후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셨다(요 21:18). 인간관계가 이처럼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각자의 일상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습득해야 한다. 습득하면서 개선해 나아간다면 다행이지만, 시행착오 끝에 관계를 포기해 버리는 일도 있다. 관계의 단절이 오기 전에 이에 관한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다.

C. 인간관계 변화의 성경적 근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사역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였으나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와를 일컬어 ‘돕는 배필’ 이라고 칭하셨다. 돕는 배필은 아담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람 사이에서 돕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아담과 하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선하게 창조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³⁷ 하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 사이에 책임 전가가 시작되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돕는 관계에서 갈등의 단계로 무너지고 말았다. 아담의 가정에는 형제끼리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비극마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돕는 관계로서의 인간 관계는 사탄에 의해 그사이에 죄가 들어와 관계의 변질이 일어나고 말았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는 갈등으로 변졌지만,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관계의 변화는 성경의 인물에도 나타나는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았지만, 개인의 성향을 언급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돼버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준 예를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1. 야곱과 에서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가져간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를 위해 에서가 들에 나가 동물을 잡으러 간 사이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잡아 형을 속여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것으로 형이 가져가야 할 축복을 가로챈다. 뒤늦게 돌아온 에서는 아버지에게 다시 축복을 요구하지만 번복하지 못한다. 그 이후 형제의 사이는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 야곱은 도망하는 인생을 살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 형 에서가 자신과 가족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지만, 극적으로 두 형제는 화해한다.

2. 요셉과 그의 가족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시작한다. 수많은 형제

³⁷ 윌리엄 J. 디엄,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 박우석 역 (서울: 프리셋트, 1998), 220.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으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야곱은 다른 형제들이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므로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됐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고 형제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만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애굽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된다. 그가 애굽에 온 것은 형제들의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형제 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동기이며 목적이기도 하다.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형제와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

3.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직접 바꾸어줄 정도로 그 관계는 매우 친밀했다.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한 산에 오르는 동안에도 어김없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만다. 스승과 제자의 애뜻한 관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 베드로는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용서받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악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

제 III 장

DISC학교 이론정리

A. 관계 교육의 필요성

관계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이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것³⁸⁾’ 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관계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상호적이라는 의미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불편한 마음으로 한 공간에 있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공헌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농담을 건네기도 한다. 하지만, 가벼운 농담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는 것도 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름을 묻는 것도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 몰랐던 것을 물으면서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해 나아간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도 아니며, 그 정보의 양이 관계의 친밀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마음속 내면의 것을 서로 교환할 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 방법의 하나가 서로의

³⁸⁾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삶을 나누는 것이다. 삶을 나눈다는 것은 영의 상호 교환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삶을 잘 나누는 사람들의 관계는 항상 생명력과 활기를 띤다.³⁹ 그것은 교회 안에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1:23).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지체가 있다. 그 지체의 기능만 안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잘 그리고 더욱 긴밀하게 유지되면서 생명성을 이어가야 한다.

교육이란 참여와 교제를 통하여 일어나는데 이 교제를 통한 배움은 믿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삶의 방법을 서로 교화하는 방법이어서 서로서로를 고무시키고 격려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켜 주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켜서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⁴⁰ 지식의 전달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를 통한 교육이다. 이에 본고는 관계 개선을 위해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배우며 서로를 알아가도록 구성된 DISC 세미나를 소개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며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B. DISC란 무엇인가?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는 이미 2,4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히포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네 가지 기질과 네 가지 원소를 소개했다. 이러한

³⁹ Tom Marshal, *Right relationships: A Biblical Foundation for Making and Mending Relationships*, 『관계-축복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 채병두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9), 12-15.

⁴⁰ 홍수연, 『관계회복 활성화를 통한 전통적 교회 개선방안 연구』(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 학원대학교, 2019), 21.

행동유형에 관해서 에릭 프롬은 인간의 네 가지 성향을 밝혀냈고, 곤충학자 파블로프도 네 가지 성질을 소개할 만큼 다양하게 변형되어 연구되어왔다.⁴¹ DISC 행동유형 이론은 윌리엄말스톤 교수가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개발한 이론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네 기질을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로 설명했다. 여기에서 윌리엄말스톤 교수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내면의 성격유형을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유형으로 구분했다. 성격을 4가지로 나누면서 각 성격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⁴²

<표12> 각 유형에 맞는 단어⁴³

D형(주도형)	Dogmatic(독단적인), Domineering(거만한), Directive(지배적인), Demanding(요구가 지나친), Decisive(단호한), Determined doer(결연한 실행자), Dictatorial(독재적인), Defiant(도전적인)
I형(사교형)	Inspirational(영감이 풍부한), Influencing(감화를 주는), Inducing(설득력 있는), Interacting(영향을 끼치는), Impressive(인상적인), Interested(흥미 있는), Interchangeable(융통성 있는)

⁴¹ 에릭 로젠버그, 『사람을 읽는 힘 DiSC』 이미정 역 (서울:베가박스,2013), 163.

⁴² 로젠버그, 『사람을 읽는 힘 DiSC』, 25.

⁴³ 홍광수, 『기질로 읽는 내 삶의 프로파일』 (서울: 도서출판 NCD, 2009), 25.

S형(안정형)	Sweet(감미로운), Steady(한결같은), Stable(안정적인), Shy(수줍은), Status quo(안주하는), Sensitive(민감한), Service(봉사하는)
C형(신중형)	Calculating(계산적인), Cautious(신중함), Competent(유능한), Compliant(유순함), Contemplative(관조적인), Conservative(보수적인), Careful(조심성 있는), Correct(정확한) Concise(간결함), Critical(비판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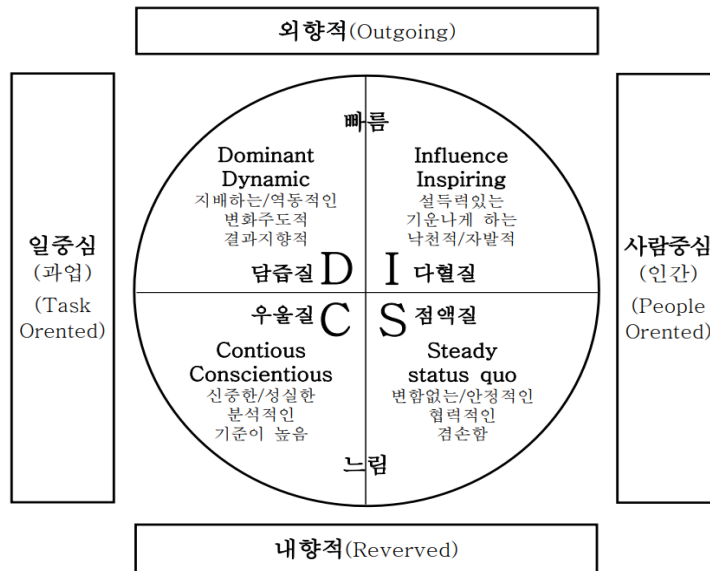
C. DISC의 행동유형

즉 DISC 행동유형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담즙질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D형(Directive Determined, 지시적인 주도형)으로, 다혈질은 I형(Interactive Influencing, 상호적인 사교형), 점액질은 S형(Supportive Soft-hearted, 지원적인 안정형)으로, 우울질은 C형(Corrective Conscientious, 완벽주의적인 신중형)으로 나누었다.⁴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관점과 그 환경에 비추어 자신의 개인적인 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행동

⁴⁴ 홍광수, 『기질로 읽는 내 삶의 프로파일』 (서울: 도서출판 NCD, 2009), 24.

유형이 구분된다.⁴⁵ 행동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방법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자신의 행동유형을 발견하며, 때로는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된다. DISC의 네 가지 행동유형과 네 가지 기질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각각의 관계는 아래 <표13>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네 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다.

<표13> 기질의 관계성과 일의 속도⁴⁶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인간의 행동은 사람지향인 것과 일 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감성적으로 격려하는 I형과 안정적인 상황을 추구하며 협력해서 일해 나가는 S형은 사람 지향적인 유형에 속한다. 이는 각 기질에 따라 일을 수행해 나가는 속도에 따라서 다시 구분된다. 그룹 내에서 지배적이며 활동적인 D형과 매사에 신중하고 계획적이며 성실한 C형은 사람보다 과업 지향적인 것을 알게 된다.

⁴⁵ 이창준, 『재미있는 사람읽기: DISC를 활용한 유형별 공략법』 (서울: 구루북, 2002), 27.

⁴⁶ 홍광수, 『기질로 읽는 내 삶의 프로파일』, 27.

행동 선호에 따라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주도형(Dominance : D형)

이 기질 유형의 사람들의 전체 비율은 10% 안팎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⁴⁷ 주도형의 특징은 마주하는 일에 대하여 처하게 되는 장애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아간다. 주도형에 속하는 사람은 통제와 선택을 원하기 때문에 강력하고 독립적인 영역을 일으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⁴⁸ 주도적으로 일해 나가며 독재적이며, 의지가 강한 편이다. 단호하게 결정하며 독립심이 강해서 상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바쁘게 움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할 것을 독려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자주 시도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자율, 의지, 권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며,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일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 타인의 간섭을 싫어하는 면도 있지만,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적극적이고, 일해 나아가는 속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과업 지향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공감하는 것에 다소 인색하다.

보스기질이 있으며,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 술선수범하기 위해 노력하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을 크게 벌이는 편이며, 어떻게 일하는지 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더 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능력이 있으며, 그만큼 열정이 많다. 일만 잘하는 것과

⁴⁷ 홍광수, 『기질로 읽는 내 삶의 프로파일』 25.

⁴⁸ Robert A. Rohm, *Positive Personality Profiles*, 박옥 역, 『성격으로 알아보는 속시원한 대화법』 (서울: 도서출판 나라, 2005), 120.

더불어 정리하는 일도 잘 해내면서 작은 소도구들이나 소장품 등을 진열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주도형의 단점으로는 일을 하면서 주위 사람을 잘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인관계에 소홀하면서 일 중심적인 성향을 펼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독점하면서 자신이 이끌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타인에게 군림하게 되면 공동체 내에서 잡음이 나기도 한다. 때로는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해 후회하기도 하며,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생색내는 것을 좋아한다. 앞서는 성향과 함께 독립심과 자부심이 있으므로, 자기만족에 빠질 때가 있으며,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자기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할 때도 있다. 이상의 특성을 7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강한 자신감: 자기 자신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일을 진행하지만, 가끔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의사결정은 빠르게 그리고 쉽게 한다.

② 용기: 무모하다고 여길 정도로 강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닥쳐올 위험 부담을 예상하면서도 모험을 추구한다.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을 알보려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

③ 결과 지향적인 성향: 지시적이며, 단호한 면이 있다. 목표지향적인 성향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며 일을 진행한다. 목적이 좌절되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쉽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④ 지시적, 명령적인 성향: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명령과 지시하는 것을 즐긴다. 자신이 결정하면 상대방은 따라오기를 바란다.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곧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란다.

⑤ 경쟁적인 성향: 단호하고 지시적인 성향은 운동 경기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운동 경기에서 때로는 지나친 승부욕으로 승리가 아니면 패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 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전이 없는 일이라면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⑥ 변화의 대항자적 성향: 의사 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대화와 소통이 부족할 때가 있다.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새로운 절차나 규율을 주도해 나아간다.

⑦ 지시적이며 직설적인 성향: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직설적인 표현을 좋아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칠고 무례하다는 인상을 줄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해받을 때도 있다. 직접적인 대화를 선호하고 자질구레한 말이나 표현 등은 선호하지 않는다.

2. 사교형(Interactive Influencing : D형)

I형은 다혈질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부드러운 듯 하지만 활동적인 성향을 보인다. 많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며 지내는 것을 좋아하며, 처음 만나는 사람도 쉽게 사귀는 장점이 있다. 골치 아픈 일은 싫어한다. 이들은 재미있는 일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용기와 격려를 얻기도 한다. 감정이 풍부하고 명랑하며 창조적인 일을 재미있게 해 나아가며 혼자 해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해내는 것을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 이 유형의

사람을 한마디로 관계제일주의자라 부를 수 있다.⁴⁹

I형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매사에 적극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으로 명랑한 말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제일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눈에 잘 뜨인다.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서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이곳저곳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며, 생각나는 대로 참견하고 조언한다. 행동을 먼저 하고 난 다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때로는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순진하고 순박한 성격이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I형을 좋아한다. 그러나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폭발하듯 웃었다가 때로는 금방 눈물까지 흘리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전반적으로 I형은 의지가 약하며 감정이 불안정하여 다른 사람들의 통제가 필요할 때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하고 활동적인 일을 선호한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말문이 막힌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혼자 적막하게 있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하며,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할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까닭에 비논리적이며 일관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매사에 쉽게 흥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역시 쉽게 싫증을 느끼기도 한다. 자제력이 부족하므로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주위 사람을 격려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⁵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⁴⁹ 홍광수, 『기질로 읽는 내 삶의 프로파일』, 77.

⁵⁰ 로마서 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과 일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록 기운이 솟는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며 언제나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꾸밈없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리를 잘 못 하는 경향이 있다.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채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질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시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명령 내지는 강요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타이르고 존중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I 유형의 특징을 7가지로 말할 수 있다.

① 인간 중심적: I형에 가까운 사람은 매우 사교적이어서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여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린다. 누구와도 어울리며 일을 시작하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깊게 상처받는 예도 있다.

② 감성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낯설어하지 않는다. 어떤 사건에서도 풍부하게 감정을 표현한다. 자신의 좋은 감정을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신체적으로 애정을 표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감정의 표현을 통해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어려운 점은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자신에 대해 비판이나 약점을 말할 때 매우 민감하게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③ 말이 많은 성향: I형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I형을 찾는데 어렵지 않다. 유머나 위트로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④ 즐거움을 찾는 성향: I형은 모임이나 파티를 즐겨워한다. 자신이 속해 있는 모임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모임을 즐겨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일의 결정에 있어서, 속전속결형이어서 지루하거나 무딘 태도를 싫어한다.

⑤ 낙천적: I형의 사람들은 매우 낙천적이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최상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실패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최선을 다해 이겨 나가려고 노력한다.

⑥ 자발적인 태도: I형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한곳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낀다. 자유분방한 마음에 다소 충동적인 면도 있으며 이런 성향은 조직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⑦ 박수갈채: 칭찬과 칭송을 받기를 원하며, 자신들이 가는 그곳에서는 환영 받고자 한다. 가는 곳마다 주목받거나 시선을 받는 자리를 선호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에 경청하고, 주목한다면 생기가 넘쳐나기 시작하나. 가장 두려운 순간은 남에게 거부당하는 것이다.

3. 안정형(Supportive Soft-hearted : S형)

점액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기질보다도 온유하며 침착하고 친절하며 타인과 잘 어울리며 다른 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한마디로 온유한 자라 할 수가 있다.⁵¹ 적응력이 강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적게 받으며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므로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낸다.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해내는 스타일이다. 어려움 없이 일을 해내려는 성향이 있으며, 하는 동안 부작용이나 상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너무 멀리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침착을 유지하면서 화가 나는 상황에도 가슴에 담아 두며 참는 성격이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변화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앞장서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뒤를 따라가는 유형이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하며 마음의 분노도 적고 어떤 상황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느긋하고 진중하며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천성적으로 태평하고 과묵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방관자적인 사람으로 오해를 받거나 무능해 보일 수도 있다.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없으며 위험한 일 앞에서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다. S유형의 7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확고부동한 성향: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하는 말에 지원적이며 때로는 발생하는 문제에도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헌신적으로 협력하며 충성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직한 모습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내지만, 이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② 조력자의 성향: 앞에서 이끌어가기 보다는 헌신적으로 남을 배려하며

⁵¹ 홍광수, 『기질로 읽는 내 삶의 프로파일』, 117.

충실하게 조력하는 모습이 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모습은 어디에든지 나타난다. 스스로 의사결정 하지 않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의견에 경청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아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③ 친근하게 다가서는 성향: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익숙한 패턴에 안정감을 느끼며 전문성을 강화한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나 계획에 없었던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안정감을 헤치는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모습이 타인에게는 답답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④ 지원적인 성향: 자신의 일을 해 나아가는 노력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성향이 강하다. 부탁받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해서 도움을 준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기쁜 마음으로 도움에 응한다.

⑤ 겸손한 태도: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로를 자신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겸손한 모습이 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칭찬에 대해서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예절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며, 선을 넘는 것을 싫어한다.

⑥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 관계를 중시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적한다. 거친 태도나 경위 없는 행동으로 지적하지 않는다.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익숙하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

⑦ 실용적인 태도: 방법을 생각해 낼 때 뜬금없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고안해 낸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심사숙고하며

그 다음 단계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해 나간다. 실질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하기 좋아하며 사귀기 쉬운 사람으로 인식한다.

4. 신중형(Corrective Conscientious : C형)

우울질을 기질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다. 완벽주의자의 성격이어서 복잡한 정신 구조를 소유한다. 일을 수행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깊이 생각하며 일을 시작한다. 때로는 감정이 풍부하며 민감한 성격을 소유하기도 한다. 냉철한 판단으로 일하므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다. 조용히 생각하고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다. 익숙한 상황 안에서 표현하기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면,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는다. 강한 상상력을 소유한 사람은 낭만주의적 경향으로 가기 쉽고, 분석적 사고를 소유한 사람은 종종 비판적으로 되어 완전주의를 요구한다. 감성이 풍부하여 예술가들이 많고, 법이나 철학 등과 같은 이론적인 학문을 즐긴다.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일을 실행한다. 진지하게 인생을 설계하며,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처리하고, 아름다움과 지성에 관심과 가치를 둔다. 내성적인 성향과 함께 비판을 넘어 비판적이기도 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는 습관이 있다. 심리적 활동이 활발하다. 연구하고 숙고하며, 복잡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할 때도 진지하고 계획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성향으로 가끔은 공적인 태도를 갖춘 사람으로 이해한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며, 계획을 잘 세우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생각이 깊거나 분석적인 특성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극한 상황에 이를 때면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관계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목표나 이상을 추구하면서 정확한 절차대로 일하기 좋아한다. 권위와 규칙을 존중하며 일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정확성을 요구하는 성격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재능은 많으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중압감을 느끼거나 독촉 받는 것을 싫어한다. C 유형의 7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 기준이 높다: 자기 행동과 태도를 강한 기준으로 규제한다. 그리고 습득한 좋은 행동이나 규범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만족한 상황에 이르지 못하면 불안감을 넘어 죄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생각한다. 비판을 두려워하며 항상 최선을 다한다.

② 핵심을 파악하며 집중한다: 분주한 중에도 일의 핵심을 파악하며 그것에 집중한다. 남들이 핵심에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핵심을 잘 이루기까지 주의를 기울여 실수를 없애도록 한다.

③ 자기통제에 능숙하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일해 나가며 집중력이 강하다. 자기통제가 성공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절제하는 능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탁월하다.

④ 조심스럽다: 주변의 일에 대해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앞뒤를 잘 따지고 행동한다. 훌륭한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다면 일을 시작하는 것을 꺼린다. 자신의 감정 혹은 느낌을 표현하지 않으므로 속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다.

⑤ 분석적이며 신중한 태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 행동보다 생각을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목표가 있으면 이루기까지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충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없다.

⑥ 직관적으로 판단한다: 해당하는 내용의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하면서

분석하므로 판단하는 직관력이 강하다.

⑦ 올바른 과정을 지향한다: 올바른 방법과 절차를 선호한다.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엄청난 일이든 맡겨진 일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은 명확하나 좋은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판단에는 어려워한다.

DISC의 유형별 특성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14> DISC 유형별 특성⁵²

유형	일반적 특징	강점	약점
D유형 (Directive Determined 지시적인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고난 지도자 - 지시적이다. - 단호하다. -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 고집이 세다. - 행동이 우선이다. - “내 식대로 합시다.” - 업적을 중요히 여김 - 능력 인정의 욕구가 강함 - 빠른 일처리 - 신속한 통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있는 태도 - 목표지향적 - 자신감 - 경쟁적 - 의지가 강함 - 직선적 - 솔직한 태도 - 빠르고 정확한 사리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을성이 부족함 - 자만감 - 공격적 태도 - 고집이 센 - 화를 잘 냄 - 무모한 태도 - 비정함 - 지나친 보스기질 - 독재적이고 무감각

⁵²설은주, 설영주, 『성숙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 (서울: 도서출판 살림, 2005),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이 있다. - 남을 압도하는 자세다. 		
<p style="text-align: center;">I유형 (Interactive Influencing 상호적인 사교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적이다 - 상호작용적이다. -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 “ 재미있게 합시다” -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 애정, 인정, 수용의 욕구가 강하다. - 끊임없는 말, 큰 목소리, 계속 움직이는 손, 열정, 다채로운 표정 - 천진난만하고 약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천적이다. - 상상력이 풍부하다. - 사교적이다. - 열성적이다. - 좋은 대화 상대가 된다. - 자발적이다. - 다채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적이다. - 말이 많다. - 비현실적이다. - 공상적이다. - 충동적이다. - 체계적이지 못하다. - 무질서한 생활 - 진지하지 못함 - 속기 쉬움

<p style="text-align: center;">S유형 (Supportive Soft-hearted 지원적인 안정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분하고 냉정하며 가라앉음 - 좋은 것이 좋다. - 일관되고 균형적이다. - 지원적이다. - 마음이 부드럽다. - 상냥하다. - 관찰을 잘한다. - “쉽게 합시다” - 존경, 가치의식, 이해, 정서적 지원 - 조화의 욕구가 강함 (타협적임) - 조용한 태도 - 편안한 자세 - 겁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고 우유부단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 꾸준한 태도 - 안이한 태도 - 상대하기 쉬운 태도 - 마음이 부드러움 - 도움을 주려는 태도 - 균형있는 성향 - 남을 즐겁게 해주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성, 활력이 부족하다. - 변화를 싫어한다 - 쫓대가 없다. - 지나치게 대우 하려 한다. - 쉽게 속아 넘어 간다. - 너무 약하다.
<p style="text-align: center;">C유형 (Corrective Conscientious 완벽한 신중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려 깊고 분석적이다. - 남들에게 예민하고 자기 중심적이다. - 진지하고 목적의식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적이다. - 양심적이다. - 높은 이상을 추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교적이다. - 의심이 많다. - 지나친 걱정 - 비판적

	<p>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이고 <p>예술적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치려 한다. - 양심적이다. - 성실하다. - 생각을 잘하는 <p>사람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제대로 합시다” - 안정, 여유, 감수성, <p>후원</p> <p>받고 싶은 욕구가</p> <p>강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하고 예민한 자세 - 자신을 낮추는 말투, - 꼼꼼하고 단정한 외모 - 부정적인 것에 <p>집착하는</p> <p>경향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상의 목표달 <p>성욕구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력 있는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민하고 직관 <p>적이다.</p>	<p>/판단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벽주의적 <p>성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에 <p>상처받기</p> <p>쉽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이다 - 세부적인 것에 <p>너무 집착한다.</p>
--	---	--	---

아래 표는 DISC 유형별 대인관계와 단체생활에서 특성, 그리고 이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정리한 표다.

<표15> DISC 유형별 대인관계, 단체생활, 개선사항⁵³

유형	대인관계	단체생활	개선사항
D유형 (Directive Determined 지시적인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활동을 중시함 - 친구 사귄 필요를 크게 못 느낌 - 남을 지배함 - 남의 일을 자기가 결정함 - 혼자서만 하려고 함 - 사과하지 않음 - 긴급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지향적이고 조직적이다. - 효율적이고 목표를 잘 달성함 - 작은 일에 짜증을 냄 -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남을 시키려고만 함 - 방법에 상관 않고 결과만 중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에게 결정권과 권한을 위임시켜야 함 - 인내심이 필요함 -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압박을 하지 말 것

⁵³설은주, 설영주, 『성숙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 98.

<p style="text-align: center;">I유형 (Interactive Influencing 상호적인 사교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를 잘 사귀 - 사람을 좋아함 - 칭찬에 약함 - 참견을 잘하고 <p>남의 말을 잘 듣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기에 연연함 - 마음이 오락가락하며 실수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력적이고 열성적이고 자발적이다. - 남이 일하도록 매료 시킴 - 말이 앞서고 끝마 무리가 시원치 않음 - 무절제하고 시간낭비가 많음 - 감정으로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실천하는 법을 배움
<p style="text-align: center;">S유형 (Supportive Soft-hearted 지원적인 안정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와도 같이 잘 지냄 -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함 - 동정과 애정이 많음 - 변화를 싫어함 - 계획에 무관심함 - 관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능하고 건설함 - 화평하고 협조적임 - 압박에 잘 견딤 - 의욕이 모자라고 실천이 모자람 - 재촉당하는 것을 싫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것 - 남의 문제를 잘 다룬다 - 루트 자신의 문제에도 잘 대처할 것

<p>C유형 (Corrective Conscientious 완벽한 신중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심해서 사귀 - 연민의 정이 많음 - 빈정대며 성가시게 굵 - 성실하고 헌신적임 - 남에게 너무 의존함 - 남을 의심함 - 남에게 관심이 많음 - 사회적으로 불안함 - 물러서고 기피함 - 적대적이고 복수심이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밀하고 일정에 따라 움직임 - 끈기있고 끝까지 견딜 - 문제를 정확히 파 악하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모색함 - 사람을 기피하고 스스로 기가 죽음 - 계획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씀 - 남의 눈치를 보고 즐기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을 지나치게 심 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며 남들도 완벽 주의자가 되기를 강요하지 말 것

D. DISC 학교의 이해⁵⁴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많이 소개되고 동참을 유도한다. 가장 먼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를 통해 경험한다. 그런데 정작 첫 번째 말했던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왜 나 자신에 대해 분노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짜증이 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가장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 나가면서 시행착오 역시 반복하게 된다. 인간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끼리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나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도 병행되어야 한다. DISC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유형을 분석하는 도구이다. 나 자신이 체계적으로 검증된 도구에 의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게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고 관계를 형성한다면 두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여타의

⁵⁴국제터치본부, 『건강한관계 세우기 소그룹 워크북』 정세광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9), 2.를 요약 및 재구성한 내용이다.

성격유형을 분석하는 도구도 있지만, DISC는 행동유형을 분석하는 도구이다. 그룹 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연구하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도구이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며, 또 나와 상대방의 의사소통이나 행동 방식의 차이를 미리 인식하고 그 차이를 서로 나누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제 IV 장

프로젝트 계획과 실행

A. 프로젝트 설명

본 장에서는 목천교회에서 실시한 건강한 관계 세미나를 위해 위원회에서 준비모임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각 강좌는 부교역자들이 교제를 연구하고 강의하도록 하였다. 세미나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대상을 각 교회학교로 확대했다. 그리고 참가 대상을 더 세밀하게 하려면 구성되는 모임마다 소그룹으로 세미나를 진행해서 거의 모든 성도가 본 세미나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논문의 핵심이다.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가 더 튼튼하고 긴밀하게 유지되도록,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기획했다.

1. 조장 모임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회의 위원들과 조장들이 세미나를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여하는 대부분은 이미 세미나를 참여했고, 적용하여

어떻게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는 성도들이다. 세미나의 전체 개요와 일정, 그리고 스태프들이 준비해야 할 것과 세미나에서 협력해야 할 것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세미나를 경험하면서 미흡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 외에 기억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세미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다. 조장 모임을 위한 안내와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표16> 조장 모임 안내문

<u>건강한 관계세우기 세미나 조장모임</u>				
*일시: 2019년 4월 7일(주일) 오후 1:30				
*장소: 찬양대실				
*주관: 은사중심사역위원회				
강의 계획표 및 순서				
▪ 세미나 일시				
- 기간: 2019년 6월 2,9,16일(3주간 주일)				
- 시간 / 장소: 오후 1시 / 찬양대실				
▪ 강의 계획표 및 순서				
	시 간	내 용	준비물	담당자
마음열기	1:00 - 1:15	- 만남의 시간	이름표	

	(15분)	- 각자 소개하기 - 현재의 느낌 나누기	필기도구	
만남의 시간	1:15 - 1:30 (15분)	- 과정 진행 규칙 및 서약서 작성 - 전체 프로그램 소개	서약서 프로그램 안내지	
사립의 시간 /강 의	1:30-2:00 (30분)	- 개인별 목표 정하기 - 별칭 짓기 - 피드백 - 강의	용지, 필기도구	
휴 식	2:00- 2:10(10분)	- 간식 나누며 대화	간식	
사립의 시간	2:10-2:45 (35분)	- 공통점 나누기	용지, 필기도구	
적용하기	2:45-3:00 (15분)	- 깨달은 점, 느낀 점, 적용할 점 나누기 - 묵상 및 기도하기	잔잔한 음악	

참고사항

1. 테이블 리더의 역할:

①조원들 연락하여 세미나 참석 안내, 특별히 지각하지 않도록 안내(10분전 참석)

②세미나 진행시 도우미 역할-강사 진행에 반응유도, 성격 유형 프로필 체크시 도우미

-조장들은 교제를 먼저 읽고 성격유형프로필을 체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당일에는 조원들의 체크를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조원들의 교제와 조별 나눔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우미 역할

④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조원들이 세미나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원들이 세미나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세미나 이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서로 수용하며 섬김으로 건강한 관계를 이루도록 함.

⑤조원 중 어린아이가 세미나에 따라 올 경우가 있다면 위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⑥기타(세미나 진행에 방해 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함, 핸드폰 전원 끄도록)

2. 사후관리

- ①세미나후 개인별 자료정리
- ②상담전화 후 자료 정리하여 교적부에 등록하도록

2. 세미나 홍보와 모집

세미나를 홍보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주보 광고를 통해서다. 주보 광고와 더불어 교회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한다. 주보 광고가 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교인들 전체에 교회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이다. 주보에 광고를 싣는 것과 동시에 담임목사에게 요청하여 금요기도회 시간을 이용해 세미나를 주제로 한 설교와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허락을 구했다. 설교를 통해 영적인 깨달음도 경험하지만, 의지적 결단을 일으키기도 한다. DISC 세미나에 영적인 관심을 모으도록 설교했다. 설교를 통해 영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했다.

- 본문: 전도서 4장 7-12

- 제목: 세겹줄의 힘

줄다리를 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줄다리에 사용하는 줄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맨 손으로 줄다리를 하면 손바닥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장갑을 끼고 줄다리를 합니다. 줄다리에 사용하는 줄이 두꺼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이지만,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닥의 줄이 서로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튼튼한 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줄이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게 재질이 다르고, 두께가 다릅니다. 가장 가느다란 줄은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의 발달로 한 가닥의 줄이지만 점점 튼튼한 줄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한 가닥의 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줄의 굵기는 점점 굵어집니다. 줄이 굵어진다는 것은 한 가닥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줄을 이루는 가닥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얽혀있는 각각의 줄의 굵기도 점점 굵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줄의 모양이 개선되는 이유는 점점 더 튼튼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줄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역시 건강해야 합니다. 줄어들어 올릴 물건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서만 즐겁게 지내며 끝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복음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던 곳도 안디옥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을까요? 두 사람이 있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있을 때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Syn+Eregy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Syn은 ‘함께’ 라는 뜻입니다. 에너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Synergy라는 말은 함께 힘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유익한 점이 나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은 혼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넘어진 나를 누군가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동무(friend)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동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옆의 친구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혼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과격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pity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영적인 동무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을 말씀할 때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결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것과 그럼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막상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속수무책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이 그렇다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는 언제나 건강하고 성장만 경험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분열의 상처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또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얽혀있어야 합니다.

잘 얽혀있을 때 나타나는 일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누우면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너지 효과입니다. 영적인 시너지 효과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일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영적인 시너지는 그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공동체에서 각각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얽혀 있으려면 한 가닥 한 가닥의 줄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염두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하며, 또 연약한 부분이 건강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줄이 아니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욱 강력하게 동이는 한 가닥의 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강력한 세겉줄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영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성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몰랐던 성도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⁵⁵

기도회와 더불어 교인들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회 내 공식 게시판뿐만 아니라, 각 교회학교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교회 출입구와 식당 등 성도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포스터를 부착했다. 그리고 포스터 모양으로 엽서 크기로 인쇄하여 전도팀을 통해 마을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였다. 후보에 간지로 끼워 성도들이 세미나의 내용을 먼저 접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면 지역 주민들에게 세미나를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 2주간 게시판과 전도대를 통해 홍보한 후, 후보에 신청서를 간지로 배부했다. 신청서에는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적도록 하여 참가한 성도들이 최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홍보하는 동안 성도들이 세미나에

⁵⁵ DISC 세미나의 필요성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전한 연구자의 설교문.

대해 물어오는 경우가 있었으며, 원활한 홍보를 위해 세미나의 내용에 대해 담당 교역자뿐만 아니라, 전임 교역자 모두 세미나에 대한 취지와 내용,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 얻는 유익 등을 충분히 공유해서 누구에게라도 문의가 들어와도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역자가 세미나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교회의 중점 사역이라는 인식을 주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표17> 세미나 안내 포스터

건강한 관계 세미나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_엡 2:22

늘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면서 '내 맘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먼저는 내 맘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년 6월 **2일 9일 16일(주일)** 오후 4시

장 소 목천교회 찬양대실

대 상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성도

신 청 교회 사무실 및 교역자실

목천교회 사랑의관계 사역위원회

<표18> 세미나 신청서

**나를 알고 타인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통해 행복한 교회공동체를 세웁시다.**

[건강한 관계 세우기] 세미나

- 1강: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2강: 자기에 대한 이해하기
- 3강: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 4강: 교회를 바꾸고 일터를 바꾸자

- 일시: 2019년 4월 7일(주일) 오후 1시 30분 (4주간)
- 장소: 세미나실
- 문의: 교회 사무실, 교역자실

절 취 선

[건강한 관계 세우기] 세미나 신청서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세미나를 통해 얻고 싶은 것: _____

"건강한 관계 세우기"세미나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자: _____(서명)

3. 프로그램 진행

1) 1주차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한다. DISC학교의 진행 과정과 규칙,
그리고 강사를 소개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각

회기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목표를 공유하면서 구성원들끼리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목표를 구체화하면서 목표에 잘 이르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성원에게 별명을 짓도록 해서 익명성을 보장하게 하고, 더욱 친밀함을 갖도록 한다.

DISC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숙한 관계에 이를 수 있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다. 강의 내용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써 심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특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기제의 종류와 원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

2) 2주차

검사한 결과지를 토대로 자신의 성격유형을 해석하는 시간이다. 성격유형에 대한 개관을 먼저 살펴본 다음 자신의 유형을 살펴본다. 각각의 4가지 유형에서 각 수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을 실례로 들어가면서 설명한다. 그리고 조별 활동을 통해서 서로 관찰한 성격과 스타일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나누도록 한다. 같은 상황에서 성향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며, 서로의 연약함을 공유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교회 안에 여러 성향이 함께 성숙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3) 3주차

DISC 검사를 토대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한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주어진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다. 특별히 자신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눔을 통해 서로 이해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찬양과 기도회를 통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는 순서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는다.

4) 4주차

자신에 대해 알고 서로에 대해 안 다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관계가 개선되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토의해 습득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토의해 알아가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기별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회기마다 이루려고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 기록하였다. 주마다 주어진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묵상한 시간을 갖은 다음 주어진 찬양을 부른다. 찬양을 부른 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나누는 시간과 함께 주별 과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주마다 주어진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나눔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순서이다.

■ 제 1 주차 프로그램

제 목	당신의 독특한 성격 유형 발견하기			
	1.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 관계 작업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2. 그들 자신의 성격 스타일을 인식한다. 3. DISC 프로필이 무엇을 측정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목 표				
성경구절	창세기 2: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찬 양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			
활 동	단 계	시간	내 용	준 비
	마음열기	15분	- 만남의 시간 - 각자 소개하기 - 현재의 느낌 나누기	이름표 필기도구
	만남의 시간	20분	- 과정 진행 규칙 및 서약서 작성 - 전체 프로그램 소개	서약서 프로그램 안내지
	사립의 시간	30분	- 개인별 목표 정하기 - 별칭 짓기 - 피드백	용지, 필기도구
	휴 식	10분	- 간식 나누며 대화	간식
	사립의 시간	35분	- 공통점 나누기	용지, 필기도구
	적용하기	15분	- 깨달은 점, 느낀 점, 적용할 점 나누기 - 묵상 및 기도하기	잔잔한 음악
	과 제	묵상, 기도 노트 기록하기		

■ 제 2 주차 프로그램

제 목	자기에 대한 이해하기			
	1. 서로가 관찰한 성격 스타일에 대해 나눈다. 2. 각자 묘사한 주된 성격 스타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인식한다. 3. 각자 확인한 특성들에 기도해서 그들의 성격을 점검한다. 4. 서로 다른 스타일이 교회를 풍성하게 함을 인식한다.			
성경구절	출애굽기 4:1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찬 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활 동	단 계	시간	내 용	준 비
	마음열기	15분	- 만남의 시간 -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 나누기. - 현재의 느낌 나누기	이름표 필기도구
	만남의 시간	20분	- 주별 과제 토론 - 수업 목표 전달	교제
	강 의	30분	- DISC란 무엇인가? - 방어기제란 무엇인가?	용지, 필기도구
	휴 식	10분	- 간식 나누며 대화	간식
	사립의 시간	35분	- 비슷한 성향끼리 대화	용지, 필기도구
	적용하기	15분	- 깨달은 점, 느낀 점, 적용할 점 나누기	잔잔한 음악
	과 제	묵상, 기도 노트 기록하기		묵상기도노트

■ 제 3 주차 프로그램

제 목	당신만의 독특한 스타일				
	목 표	1. 다양한 성향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식한다. 2.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본다. 3.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한다.			
성경구절	창 1:27-28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찬 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활 동	단 계	시간	내 용	준 비	
	마음열기	15분	- 만남의 시간 -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 나누기. - 현재의 느낌 나누기	이름표 필기도구	
	만남의 시간	20분	- 주별 과제 토론 - 수업 목표 전달	교제	
	강 의	30분	- DISC성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 나누기	용지, 필기도구	
	휴 식	10분	- 간식 나누며 대화	간식	
	사권의 시간	35분	-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관계에 대해 나누기	용지, 필기도구	
	적용하기	15분	- 깨달은 점, 느낀 점, 적용할 점 나누기	잔잔한 음악	
	과 제	묵상, 기도 노트 기록하기			묵상기도노트

■ 제 4 주차 프로그램

제 목	교회를 바꾸고, 일터를 바꾸자			
	1. 다른 사람의 성향과 비교하며 깊은 관계를 맺는다. 2. 각자의 성향을 따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3. 효과적인 관계 형성과 복음 증거를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성경구절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찬 양	빛을 들고			
활 동	단 계	시간	내 용	준 비
	마음열기	15분	- 만남의 시간 -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 나누기. - 현재의 느낌 나누기	이름표 필기도구
	만남의 시간	20분	- 주별 과제 토론 - 수업 목표 전달	교제
	강 의	30분	-교회 안에서 역할과 대하는 자세를 나눈다. -내 성품이 장점과 단점이 되었던 예를 나눈다.	용지, 필기도구
	휴 식	10분	- 간식 나누며 대화	간식
	사권의 시간	35분	- 직장에서 나의 성품이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했을 때를 나눈다.	용지, 필기도구
	적용하기	15분	- 깨달은 점, 느낀 점, 적용할 점 나누기	잔잔한 음악
	과 제	묵상, 기도 노트 기록하기		묵상기도노트

B. 교재의 내용 및 활용방법

이 교재는 DISC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부터 시작되지만,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재와는 다르다. 이론을 가르친 후 주어진 주제에 따라 의견과 생각을 나누면서 역동을 경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별로 학습 목표가 있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모든 강사와 진행자들은 주별 목표를 인지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세미나마다 주제가 있으며, 주제에 따른 성경 말씀과 찬양이 있다. 이것을 이용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한다. 가장 먼저 참여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찬양을 한다. 15분 동안 진행되며 이 시간 동안 세미나에 필요한 준비물을 나눠주고, 자리에 앉아 찬양을 통해 마음 문이 열리게 한다. 다음으로는 만남의 시간이 있다. 이번 주에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학생들과도 공유하며, 지난 시간에 헤어지면서 부여된 과제를 점검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나눈다. 이 시간이 끝나면 강의가 있다. 강의 내용은 수 주 전에 강사들에게 미리 전달하며, 강사들이 함께 모여 수업의 내용을 토론하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교수법을 연구해 온다. 필요에 따라 교재뿐만 아니라, 영상자료도 준비하여 학생들이 세미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간단한 휴식을 갖은 다음, 두 번에 걸친 워크숍 시간이 있다. 특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둘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셋째, 예수님의 삶과 영과 임재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⁵⁶ 첫 번째 워크숍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나눔의 시간이며, 두 번째 워크숍은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깨닫고, 느끼고, 이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⁵⁶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0), 78.

나누는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조장이 역할이 아주 크다. 조장은 조원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때로는 말문이 막히거나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이야기가 멈출 때 적절한 말로 분위기를 이어가거나 대화를 도우면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조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면, 언쟁으로 번질 때가 있다. 이때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개입해서 옳고 그름이나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줘야 한다.

C. 프로젝트의 구성

이 교재는 총 4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과는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는 주제로 교육한다. 세미나에 처음 온 학생들에게 경직된 자세를 풀어주면서 그동안 건강한 관계를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돌아보고 세미나를 소개한다. 행동유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신의 행동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검사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한 후에 작성하도록 한다.

2과에서는 각 행동유형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내 행동유형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살펴본다. 내 성격유형이 그룹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3과에서는 행동유형은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네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성경 인물의 예를 들어서 행동유형을 살펴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있는 강점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다.

4과에서는 교회에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나의 행동유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상황과 어려워하는 상황을 각각 살펴보면서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도록 한다.

특히 마지막 4장에서는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성향을 파악하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공유하면서, 오해가 아닌 이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방법을 서로 고민하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건강한 관계로 협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결단을 이끌어 내도록 교재는 구성되어 있다.

제 V 장

결과 분석

A. 결과

목천교회는 6개의 위원회⁵⁷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면서 셀 교회를 지향한다. 각 위원회는 특성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교인들이 셀 공동체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자가 실시했던 DISC세미나는 은사중심사역위원회에서 진행했다. 본래 명칭은 ‘건강한관계세미나’이며, 2003년 전교인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매년 실시해 왔다. 지금은 새가족 혹은 부서 내 공동체의 성격을 파악하며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역자를 세울 때 한가지 행동유형이 편향되지 않도록 행동유형을 사역 배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룹의 리더는 각 구성원의 행동유형을 파악하면서 그룹 안에서의 역할과 활동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자료를 활용한다.

B. DISC 세미나 분석(설문지)

⁵⁷ 필요중심적 전도 위원회, 영감넘치는 예배사역 위원회, 은사중심사역위원회, 열정적 영성 사역위원회, 사랑의관계사역위원회, 전인적소그룹사역위원회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추가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가 시무한 시기는 이미 대다수 성도가 DISC 세미나를 수료한 시점이므로,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에 실시했던 설문자료를 수록했다. 해당 세미나에는 총 25명이 참여했으며, 남자가 8명, 여자가 17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20대는 2명, 30대는 4명, 40대는 8명, 50대는 11명이었다. 세미나 참여 대상으로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19> 세미나 참여 대상

연령층	참여 숫자	비율
20대	2명	8%
30대	4명	16%
40대	8명	32%
50대	11명	44%
합계	25명	100%

세미나에 대한 설문은 총 13개로 하였고, 응답의 종류에는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4가지 응답하도록 했다. 그리고 13개의 문항을 도표로 만들어 DISC세미나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을 설명했다. 각 문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미나가 내 신앙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

<표20> DISC세미나의 영향력

대답	선택	비율	누적
아니다	0명	0%	0%
보통이다	4명	16%	16%
그렇다	6명	25%	41%
매우 그렇다	15명	49%	100%
합계	25명	100%	

□ 세미나가 내 사회생활에 유익을 주었다.

<표21> DISC세미나의 사회 영향력

대답	선택	비율	누적
아니다	1명	4%	4%
보통이다	6명	25%	29%
그렇다	10명	40%	69%
매우 그렇다	8명	31%	100%
합계	25명	100%	

□ 세미나를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표22> 관계의 중요성

대답	선택	비율	누적
아니다	0명	0%	0%
보통이다	3명	12%	12%
그렇다	8명	32%	44%
매우 그렇다	14명	56%	100%
합계	25명	100%	

□ 강사들의 강의에 만족한다.

<표23> 강의 만족도

대답	선택	비율	누적
아니다	0명	0%	0%
보통이다	10명	40%	40%
그렇다	8명	32%	72%
매우 그렇다	7명	28%	100%
합계	25명	100%	

□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표24> 성도를 대하는 태도

대답	선택	비율	누적
아니다	0명	0%	0%
보통이다	4명	16%	16%
그렇다	14명	56%	72%
매우 그렇다	7명	28%	100%
합계	25명	100%	

□ 세미나를 통해 그룹의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표25> 그룹 분위기 기여도

대답	선택	비율	누적
아니다	2명	7%	7%
보통이다	5명	20%	27%
그렇다	12명	48%	75%
매우 그렇다	6명	25%	100%
합계	25명	100%	

□ 세미나 후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다.

<표26> 관계 개선 노력

대답	선택	비율	누적
아니다	0명	0%	0%
보통이다	4명	16%	16%
그렇다	13명	52%	68%
매우 그렇다	8명	32%	100%
합계	25명	100%	

□ 세미나 후에 관계 형성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

<표27> 관계에 대한 거부감

대답	선택	비율	누적
아니다	0명	0%	0%
보통이다	4명	16%	16%
그렇다	8명	32%	48%
매우 그렇다	13명	52%	100%
합계	25명	100%	

□ 세미나의 내용을 교회 밖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표28> 교회 밖 활용 정도

대답	선택	비율	누적
아니다	1명	4%	4%
보통이다	3명	12%	12%
그렇다	9명	36%	48%
매우 그렇다	12명	48%	100%
합계	25명	100%	

(10) 세미나 후에 교회 생활이 기다려진다.

<표29> 교회 기대감

대답	선택	비율	누적
아니다	1명	4%	4%
보통이다	7명	28%	32%
그렇다	9명	36%	68%
매우 그렇다	8명	32%	100%
합계	25명	100%	

(11) 세미나의 전체 만족도를 평가한다면?

<표30> 세미나 전체 만족도

점수	1	2	3	4	5	6	7	8	9	10
명	-	-	-	-	-	-	5	6	6	8
%	0	0	0	0	0	0	20	25	25	30

(12) 이 외의 다른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싶다.

<표31> 타 세미나에 대한 기대감

대답	선택	비율	누적
아니다	3명	12%	12%
보통이다	7명	28%	40%
그렇다	11명	44%	84%
매우 그렇다	4명	16%	100%
합계	25명	100%	

(13) 세미나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⁵⁸

⁵⁸ 설문지의 많은 평가의 내용 가운데 접치지 않은 것을 선별 함.

- 강의에 대한 기대감에 강의의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
- 강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아이들을 돌보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 그 외에 다른 검사에 관한 이야기가 덧붙여 졌으면 좋겠다.
- 그룹 활동을 하는 데 숫자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다.
- 강사(교역자)들이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 강의 전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아쉬웠다.
- 강의 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세미나 날씨가 교회 다른 모임과 겹치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 성격유형별로 활동하는 시간에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서 이야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 교회 안에서 DISC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은 신앙의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설문조사를 종합해 보면, DISC세미나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만큼 개인을 돌아보는 데나 혹은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의미이다.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 이후로 관계가 더욱 아름답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아주 고무적인 것은, 세미나 이후에 참여한 학생의 70%가량이 교회 생활이 기다려진다고 응답했다. 물론, 아쉬운 점도 가감없이 서술했다. 전문 강사가 아니다보니 강의의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강의 후 활발한 나눔이 시간의 제약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세미나 이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행동유형과는 별개로 조별 활동에서 나이 차이가 나는 조원과 나누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설문조사도 있다. 이 설문조사는 건강한관계세미나의 초창기 시절 세미나 전후로 시행했던 설문조사이다.⁵⁹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미나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했다. 자신의 성격유형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아 모른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갈등의 단계를 지나 상처를 주는 경우까지 가지 않았다고 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참여한 학생의 대부분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실시한 평가에서는 세미나가 유익했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강사의 준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자기 삶 속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대답했다. 진행 면에서도 대체로 만족했으며, 섬김이의 봉사도 잘 훈련되었다고 평했다.

⁵⁹<부록3-1>과 <부록3-2>를 참조하라.

C. 평가

건강한 관계 세미나는 수년 동안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해 왔던 세미나는 연간 목회계획 가운데 포함된 하나의 행사로서 진행해 왔었다. 계획 수립단계는 연간 목회 계획에서 교회 행사가 겹치지 않고, 목회자들의 사역 일정에 겹치지 않는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세미나를 마친 이후 사후관리 면에서도 마지막 시간을 이용해 참가자들에게 소감 한마디를 묻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진행하는 사역자들이 나누는 피드백 역시 세미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진행 중 어려움을 나누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세미나에 참가하기 전 마음가짐을 묻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마치는 순간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것은 이 세미나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세미나를 준비한 위원회를 통해 세미나의 전반적인 반성과 평가를 들었다. 그 다음으로 세미나에 참가한 성도들 가운데 새가족과 직분자 그리고 그룹의 지도자에게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조사했다.

1. 목사의 평가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너무나 분주한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을뿐더러 돌아봐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마련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타인의 주관적인 조언 등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주관적인 견해일 뿐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행동유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의 냉정한 진단에 공감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따라 검사 결과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성도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본 세미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한 걸음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둘째, 성도들의 활발한 역동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참가한 학생들 모두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으며, 나눔의 시간 역시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모임이 이루어지는 시간 내내 곳곳에 웃음소리와 함께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곁에서 위로해 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의 신앙 성숙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세미나 내용이 긍정적이다. 세미나 대부분은 기존의 지식을 전달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는 자신을 진단하고 앞으로 그룹 내에서 혹은 그가 속한 어느 사회에서라도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먼저, 자신을 평가하는 것 자체를 낯설어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평가지의 주의사항 가운데 자신이 희망하는 유형을 선택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혼동하며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자신을 진단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만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행동유형을 나누면서 공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아주 가끔은 의견의 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다.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은 토의의 훈련이 미흡한 결과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각 강좌를 진행하는 교역자들이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 강의의 내용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준비가 잘되지 않은 것이 느껴졌다는 의견과 함께 가르치는 강사조차도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이 가르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장들의 운영 미숙도 지적되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평가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표현이 서툴러 토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조장들의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하지만, 어떤 조장들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토의를 진행했다는 평가였다. 토의의 진행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2. 위원회의 평가

이미 언급한 대로 세미나의 원래 목표는 세미나에 참여한 성도들이 세미나의 목표에 충족하는 것과 둘째로는 이를 기획하며 준비하고 진행하는 위원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를 염두 하면서 위원회에 속한 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위원 가운데 1명을 선정하여 진행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1. 세미나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동안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 스스로가 나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더 훈련 받아야 할 사람인데 세미나의 조장으로 섬기게 된 것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먼저는 참여하는 학생들을 향한

공홀한 마음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세미나의 진행요원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감사하게도 함께 검사하고, 조별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조차도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자신도 행동유형을 다시 검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속한 조원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것과 조별 나눔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질문2. 준비하면서 미흡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었는가?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 내 다른 사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게 잘 안됐습니다. 행사가 겹치다 보니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적었으며, 조를 도우며 섬겨줘야 할 권사님도 온전히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봉사하는 중에도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장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숫자는 똑같이 여러 명이 모여있으나 그냥 친교 모임처럼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세미나의 리더로 참여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대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화를 진행하는데 다소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별 활동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해결하지 못하고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미안했지만, 스스로에게도 힘든 순간이었다.

질문3. 세미나가 성도들의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분명합니다. 참여한 성도들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세미나는 새가족만 처음 해 본 세미나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생소하고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좌를 거듭할수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중에 참여한 성도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 참석하는 것 외 다른 봉사의 자리에도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관계가 확장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3. 참가자의 평가

다음으로는 세미나를 마친 다음 세미나 전반적인 내용과 평가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의 부류를 새가족, 직분자 그리고 그룹의 리더에서 각각 세미나를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등을 물었다. 세 부류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1. 세미나에 어떤 계기로 참가하게 되었습니까?

- 새가족: 사실,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다니지는 않았지만, 한 10년 전에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도 어색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 분위기부터 너무나 생경한 장면이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과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등의 행동들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성도들의 모습이나 태도가 참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처음 들어갔을 때 느끼는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을 기계적으로 맞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새가족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상냥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예배실의 자리도 안내해 주고, 성경책이 없다고 하자 금방 어디선가 성경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배는 혼자 앉아서 드려야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디선가 또 다가와 저를 목사님에게 안내해 주었고, 간단한 티타임과 사진을 찍고 나서(사진을 찍는 것도 약간의 반강제적이었음) 교회 식당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함께 식사까지 해주신 것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교회를 빠져 나왔으며, 다음 주가 되어서 교회 갔을 때 저는 이미 기존의 신자와 다른없는 모습으로 적응을 마쳤어야 했습니다. 가져오지 못한 성경책을 찾은 다음, 혼자 예배실의 자리를 잡고 앉아야 합니다. 당연히 예배는 혼자 드려야 했고, 옆 사람의 앉고 일어섬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성경과 찬송의 내용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예배에 동참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식사는 당연히 혼자 해야 했으므로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너 주를 출석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면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게까지 제 정서를 소비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한 번쯤 고민했을 것입니다. 요즘 성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TV에서 합니다. 사실 관심은 있지만 그런 검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먼저는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집사님이 세미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행동유형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 직분자(집사, 여): 그 동안 교회에서 몇 차례 같은 주제의 세미나가 있었지만, 주일 오후 시간을 못 내 참여하지 못했다가 이번 세미나는 주일에 일하고 있지 않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 그룹의 리더(목자): 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스스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거나,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의 한계로 생각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교구 목사님에게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본 세미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세미나였습니다. 전문 강사가 강의하지 않았지만, 교역자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해서 성실하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질문2. DISC검사를 실시한 후 자신을 평가하는 데 얼마큼 도움이 되었습니까?

- 새가족: 제 딸이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거의 한다는 MBTI를 해 보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담소에 가서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제 성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서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이 MBTI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격유형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릴 때 사용하거나, 그런 성격으로 재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 딸도 제 성격을 알고는 역시 엄마 성격이 그렇다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DISC는 성격유형 검사와 달리 행동유형 검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행동의 유형을 파악하면서 함께 맞춰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DISC 검사를 소개시켜 주어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널리 형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직분자:**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칭찬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곧 나에 대해서도 좋은 말만 해줄 뿐 냉정한 이야기나 평가는 거의 금기시되다시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훈련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만 미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에 대해 냉정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 가지 안심이 되었던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조건 비판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은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없으므로 나의 행동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할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미하게 나에 대해 생각해왔던 것들을 어느 정도 수치로 보게 되니 놀라운 면도 있고, 또 극단적인 내향적이라는 부분은 내가 스스로 계발해 나갈 부분을 발견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좋았던 것은 나와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리더:** 사실, 나 자신에 대해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책이 곧 나왔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곧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니까 새가족과 같은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데 분주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겨를은 없었습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좋다면 성품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저 기도 열심히 하면 개선될 거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통해 제 자신을 거울 앞에 얹어놓으니 먼저는 놀라움과 함께 반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내 이야기인데도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이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3. DISC검사를 통해 그룹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 **새가족:**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니 고맙고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허락되지 않아 다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조별 발표회 때는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 사이에서 대화하는 것도 경험했다면 그 그룹에서 느끼는 또 다른 공기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 **직분자:** 저는 올해 처음으로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자로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전체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행동유형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은 그룹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행동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역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리더의 인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룹의 도움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리더:** 교회 안에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학교 부장입니다. 부득이하게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신속하게 되지 않거나, 치밀하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을 해 나가는 방식을 그룹에 속한 여러 지체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유형에 맞게 일을 맡긴다면 훨씬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미 실시했던 DISC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어떤 행동유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소리를 들었고, 나 역시 그를 대할 때 어떤 선입견으로 다가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룹을 이끌어가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룹을 위해서라면 아예 속한 모든 공동체원이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4.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새가족:**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이것(DISC검사)이 자꾸만 나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평가하면서 선입견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별거벗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리더들이 시험지를 던져 주면서 풀어보라고 한 다음 내 성향을 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성향도 함께 이야기해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세미나의 조장님도 그분의 성향을 말씀해 주셔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직분자:** 제가 알기로는 상담학이나 심리학은 다른 학문처럼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른 교역자들이 강좌를 나눠서 강의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하지만, 가끔은 전문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런 세미나라면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모셔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리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큼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 년 동안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유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아쉬움을 남기고 끝나는 것 중의 하나가, 짧은 일정으로 시간에 쫓기다가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번에도 끝나고 조별 나눔과 워크숍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나를 발견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로 시간을 내어 주말에 수양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부활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강을 해주신 강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4. 이번 세미나가 앞으로의 관계 형성에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 **새가족:** 저는 사실 교회에 처음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렇게 오랜 시간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마련된 것만으로 즐거웠습니다. DISC에 대해 하는 것도 성과였지만, 그보다 교회 성도들 몇 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여서 더 좋았습니다. 그밖에 다른 성도들도 많은 분이 이 검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성도들을 알아가다 보면 DISC 성향도 묻고 그것으로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직장에 있는 분들은 세미나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함께 참여한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곳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곳이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익숙해지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 **직분자:** 직분자들 가운데 이 세미나를 아직 수료하지 않은 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DISC세미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DISC를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는데 세미나가 도움이 되기 전에 세미나를 수료하지 않아 이질감을 느끼는 역작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렴풋이 내 행동유형이 어떤 것이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번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DISC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을 더 잘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강사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DISC가 보편적이다 보니 성도들과 대화 중에 DISC를 이야기하는 것을 꽤 자주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아주 가끔은 그를 판단하고 심지어 비판하는데 DISC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형성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리더: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경우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행동유형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리더가 결정하는 것에 순종적으로 잘 따라와 주는 유형이 필요할 때도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지지부진할 때는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를 도와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어떤 유형을 가졌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해 보니 분명히 리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보다 D기질이 더 강한 구성원이 리더를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리더의 결정 없이 나서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공동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리더조차도 앞서가는 분의 성향에 맞춰 수동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경우와 상황에 맞게 DISC를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 VI 장

결 론

A. 요약

본 논문을 통해 연구자가 사역했던 지역과 교회를 진단하는 것으로 논문을 시작했다. 지역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이해하는 것이 구성원을 이해하는 시작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관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 가운데 DISC학교를 통하여 교인들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 관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것이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교회에서 마련된 이와 같은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신앙생활 하면서 형성되는 성도들과 관계에 긍정적인 도움을 얻게 된다. 자신의 유형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유형을 파악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눔의 시간을 통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지 토의하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아갈 수 있다.

DISC 세미나를 통해 본 연구를 통해 참가한 성도들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세미나에 참여한 성도들은 지식 습득에는 약간의 한계는 있었으나,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과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DISC 검사라는 도구를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미성숙한 성도들은 그것을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성향을 알고 있는 것이 신앙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런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진정한 관용은 십자가의 관용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바로 그 사실이 관용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노예들이 도망가면 본보기로 삼는 사형 틀인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진정한 관용을 보여주셨다.⁶⁰

어느 교회나 즐거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늘진 모습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DISC검사라는 좋은 도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성도들의 초기 관계 형성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DISC행동유형 검사를 소개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행동유형을 알고, 나눔으로써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 가지 미흡한 것은 관계 형성이 올바르게 된 이후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졌는지를 더 긴 시간 연구 끝에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소통의 부재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서로를

⁶⁰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2), 349.

이해하는 시간의 확대를 위해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B. 제언

그 동안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에 큰 관심을 두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서 성도의 뜨거운 영성에 관심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심지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에는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었다. 성장 위주의 시류(時流)에도 이제는 마음을 돌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한국 교회에서 제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는 교회도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다.⁶¹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 교회 어느 현장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예배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하루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유머는 어찌면 우리의 민낯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 교회 내 사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친교의 현장,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

둘째, 마음의 치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다. 교회 내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를 치유해 나아간다. 단순히 오해를 푸는 것을 넘어 마음 깊숙이 내면에 자리잡고 있던

⁶¹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상처까지 치유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하는 복음에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독교인의 비율은 늘어나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오는 어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성도들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업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에 불과하다.⁶² 가르치는 강사에게 사랑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며 모임을 주선하고, 학생들을 대해야 한다. 어떤 권위적인 마음으로는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서로에게 역동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사랑에서 나오는 지식의 목표는 깨어진 자아와 세상을 연합시키고 재건시킨다. 동정에서 나온 지식은 창조물을 착취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세상을 회복시킨다. 동정에서 나온 생각은 사랑에서 나온 마음을 알려고 한다. 앎의 행위는 바로 사랑의 행위이다. 그리고 사랑의 행위란 우리 자신 속으로 타인이 들어오게 하면서 타인의 존재를 끌어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앎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⁶³ 서로의 성향과 기질을 알아가는 자리를

⁶² 고전 13: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⁶³ 김영래, “미래세대와 인식론”, 『미래시대, 미래세대, 미래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6.), 88.

마련하는 것은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된다.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지만,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DISC와 같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검사와 배움의 시간, 나눔의 시간을 통해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검사 도구와 강의, 그리고 나눔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 중에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도 있고 다혈질인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도 변화시킨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도 바꾸는 것이다.⁶⁴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세미나를 통해 강의하는 강사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상담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일 뿐 오직 치유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투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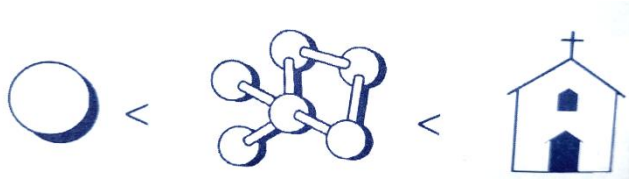
[스가랴 4:6]

⁶⁴오덕호, 『사랑하기 원합니다』 (광주: 서석출판사, 2005.), 102.

<부록1> 세미나 교재⁶⁵

제 1 과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당신의 성격유형 발견하기



당신의 셀그룹 셀 네트워크 그리스도의 몸

- 작은 그룹에서 당신은 큰 부분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처럼 셀그룹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기본단위입니다.
- 셀그룹은 서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모임입니다. 셀 그룹에는 이런 장소입니다.
 - 지속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 서로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는 제자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매일 사역의 기회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 공동체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 소그룹에서 작은 공동체로

- ① 배우기: 사람들은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알아보려고 모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참가할지를 결정합니다.
- ② 사랑하기: 나한테 유익하다 판단되면 그룹에 참여합니다. 신혼단계는 모든 일이

⁶⁵ 1과-4과의 내용은 DISC세미나의 주 교재인, 『건강한 관계 세우기 소그룹 워크북』 (서울: 도서출판 NCD, 2001)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 자기의 위치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③ 연결하기: 에덴동산에서 일어났던 갈등기입니다. 갈등을 잘 해결해야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어느 사이에든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 때마다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봉사하고, 사역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할 때 그들의 관계는 강화되면서 그룹에 잘 정착하게 됩니다.

-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당신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당신이 해왔던 노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 성격유형이란 무엇인가?

성격유형은 눈에 띄는 행동 언어입니다.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룹 안에서 행동하는지를 그 행동 속에서 성격 유형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셀 그룹에는 다양한 성격 유형을 가진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D	주도적이며, 직선적이고	우리는 이를 D유형이라고
---	--------------	---------------

	결단력 있고, 강압적이다.	부른다.
I	영향력 있고, 감화력이 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우리는 이를 I유형이라고 부른다.
S	확고하고, 안정적이며, 위험을 회피하고, 동정적이다.	우리는 이를 S유형이라고 부른다.
C	정확하고, 세심하고 순종적이며, 신중하다.	우리는 이를 C유형이라고 부른다.

□ 왜 성격유형이 중요한가?

1. 당신을 좀 더 나은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2. 갈등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해 줍니다.
4. 신용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셀 그룹을 위한 성격 유형 프로필 작성하기

*지시사항: 왼쪽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답을 합니다. 15개 범주로 되어 있는 진술들을 읽으면서 나의 행동 묘사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4,3,2,1점을 매기면 됩니다. 빈칸을 남겨두거나 같은 점수를 적으면 안 됩니다. 아래 진술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은

사점을주고 종종 그렇다고 생각되면 3점. 가끔씩 그렇다고 생각하면 2점. 거의 그렇지 않으면 1점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기입했으면, 세로의 모든 점수를 다 더하고 가,나,다,라 표시가 있는 곳에 총점을 기입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순서대로 점수를 매기지 말고, 현재 자기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진술하고 있는 순서대로 점수를 매기세요.)

질문	설명	점수	설명	점수	설명	점수	설명	점수
내 성격은...	명령적이고 주도적이다		사교적이며 감정을 잘 표현한다		태몽스럽고 비형식적이다		진지하고 세심하다 상식적이다	
나는 ..에 둘러싸인 환경을 좋아한다	개인적 성취와 보상, 목표지향적		그림, 면지, 내 "물건들"		기념품, 편안함		질서, 기쁨, 조직	
내 성격 스타일은 ...한 경향이 있다	결과를 중시		사람을 중시		과정/팀을 중시		세부사항을 중시	
다른 이에 대한 내 태도는...	약 들어맞는다		친절하고 자상하다		착실하고 자제력 있다		차갑고 객관적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종종 참을성이 없다		주위가 산만해짐을 발견한다		기꺼이 주위를 기울여 듣는다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한다	
다른 사람과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업적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가족과 친구		사건, 정보, 조직	
관계 속에서 나는 타인을 ...한 경향이 있다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잘 용납하는		가치, 질로 평가하는	
결정할 때, 나는 ...결정하는 쪽으로 치우친다	신속하고 쉽게 반응하는		내가 느끼는 대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시간 사용에서 나는 ... 내 모습을 본다	시간에 몰려있는		교제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중시하지만 그렇게 부담을 갖지는 않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간을 잘 활용하는	
내 삶의 페이스는	빠르다		열광적이다		안정되어 있다		조절되어 있고 억제한다	
내 평소 목소리의 톤은 ...	감정적, 지시적, 힘이 실려있다		감정적이고 열정적이다		감정이 적게 개입되고 낮은 톤이다		냉정하고 감정을 억제한다	
내 제스처는 대부분 ...	강하고 민첩하다		개방적이고 친절하다		계산되고 신중하다		경직되어 있고 느리다	
나는 ... 스타일의 옷을 좋아한다	정장		캐주얼		유행을 따라하는		무수적인	
나의 전체적인 태도는 ... 으로 묘사될 수 있다	권위적		매력적이고, 사교적, 외향적		수용적 또는 개방적		평가적이거나 말 없는	
내 대화 중심은	핵심,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데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방법이나 관계		사실, 정보, 데이터	
총 점	가(D)		나(I)		다(S)		라(C)	

□ 점수로 그래프 그리기

*지시사항: 각 줄의 총점을 정확히 기입하면 150점이 됩니다. 가 칸은 D를, 나 칸은 I를, 다 칸은 S를, 라 칸은 C를 측정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숫자를 줄로 연결하면 이것이 당신의 주된 성격 유형이 됩니다. 제일 높은 점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리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주된 성격 유형입니다.

	D	I	S	C
	60	60	60	60
	57	57	57	57
	54	54	54	54
	51	51	51	51
	48	48	48	48
	45	45	45	45
	42	42	42	42
	39	39	39	39
	36	36	36	36
	33	33	33	33
	30	30	30	30
	27	27	27	27
	24	24	24	24
	21	21	21	21
	18	18	18	18
	15	15	15	15

↑ 높은강도

↓ 낮은강도

↑

↓

중 간

□ DISC는 무엇을 평가해 주는가?

D	D 수치는 얼마나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도전에 잘 응전하는지를 나타낸다.
<p>강도</p> <p>D수치가 높은 사람은 좀 더 활동적이고 개인적으로 강하게 문제와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한다. 수치가 낮은 사람은 뭔가를 결정할 때, 우선 자료를 모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p>	
<p>대립되는 상황</p>	

D수치가 높은 사람은 공격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정서

D요소는 분노의 감정을 측정한다. D수치가 매우 높은 사람은 화를 빨리 낸다. D수치가 매우 낮은 사람은 화를 천천히 낸다.

I I 수치는 어떻게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지를 나타낸다.

강도

I 수치가 높은 사람은 말수가 많고 설득력이 있으며, 자신의 사고로 남을 설득하려고 한다. 수치가 낮은 사람은 자료와 사실을 더 많이 사용한다.

대립되는 상황

I 수치가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시도하거나 빨리 사과하려고 든다.

정서

I 요소는 낙천적 정서를 측정한다. I수치가 즐겁고 낙천적이다. 수치가 매우 낮은 사람은 비관적인 경향이 있다.

S S 수치는 사람이 변화에 대응하는 페이스를 나타낸다.

<p>강도</p> <p>S수치가 높은 사람은 단번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를 좋아한다. 변화에 저항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변화를 갈망하며 대응이 빠르다.</p> <p>대립되는 상황</p> <p>S수치가 높은 사람은 수동적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p> <p>정서</p> <p>S요소는 정서 결핍을 측정한다. S수치가 매우 높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깊이 알기가 어렵다. S 수치가 매우 낮은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다.</p>

C	C 수치는 규칙과 규정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p>강도</p> <p>C수치가 높은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킨다. 반대로 낮은 사람은 개인의 독립적인 것을 추구한다.</p> <p>대립되는 상황</p> <p>C수치가 높은 사람은 수동적이고 잘 위축된다.</p> <p>정서</p>	

C요소는 두려움의 정도를 나타낸다. C수치가 높은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데서 동기부여를 받는다. C 수치가 매우 낮은 사람은 겁을 덜 낸다.

□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격 유형의 평가를 옳고 그름,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타고난 강점과 저 좋아하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보다 나은 관계를 맺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당신을 알아가기위한 실습

- 당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통해 회원들 각각의 성격 유형을 짐작해 보십시오.
- 각 회원들의 성격 유형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누구의 성격 유형을 가장 정확하게 맞추었습니까?

제 2 과 자기에 대한 이해하기

□ 당신의 성격 유형 해석하기

각 사람들의 주된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보다 당신의 주된 성격 유형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유형마다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성격 유형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강점은 계발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있습니다.

□ D수치가 높은 사람의 특성

외향적인 사람, 집행자,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활동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리더” (The Leader)	
강한 자아, 참을성 없는, 직선적인, 변화를 바라는, 많은 일을 단번에 해치우는,	
눈 앞에 닥쳐야 해치우는, 강한 의지, 독립적, 주도적, 결단력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이용 당하는 것

□ I 수치가 높은 사람의 특성

사교성이 풍부한 사람, 낙천주의자, 설득하는 사람, 그 자신이 용납될 수 있는 능동적인 상황을 좋아한다.

“이야기하는 자” (The Talker)

감정적, 사람 중심, 비조직적, 낙천적, 격려하는, 영향력 있는, 열정적, 잘 끌어들이는, 표현력이 풍부한, 대중적인	
가장 큰 두려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 S 수치가 높은 사람의 특성

실용주의자, 관찰자, 외교가,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동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경청자” (The Listener)	
충성스러운, 팀 플레이어, 실속 있는 사람, 가족 중심, 높은 수준의 신뢰도, 소유욕, 적응이 늦음, 실용적, 안정된	
가장 큰 두려움	안정을 잃는 것

□ C 수치가 높은 사람의 특성

내향적인 사람, 이상주의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소극적인 상황을 좋아한다.

“사고자” (The Thinker)	
세심한, 감각이 예민한, 정확한, 질문을 잘하는, 분석적, 조절된, 고분고분한, 재능 있는, 이상주의적, 완벽주의자	
가장 큰 두려움	비판받는 것, 상황이나 조건들의 변화

□ 무엇을 배웠습니까?

강점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대인 관계와 사역에서 낙망하게 된다.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

- 나를 묘사하는 일반적 특성은 무엇인가요?

- 내 행동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 내 행동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 사역하거나 대화할 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 그룹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가?











- 나의 바꾸고 싶은 특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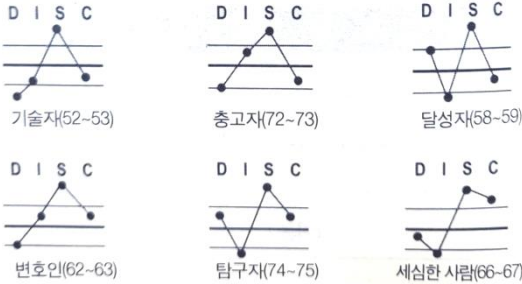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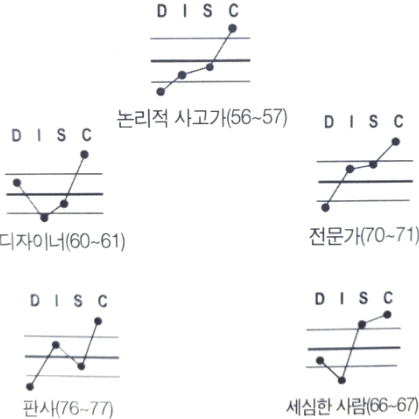
제 3 과 당신만의 독특한 스타일

□ 각각의 개성적인 특성을 통합하기

이 과에서는 복합적 성격 유형을 확인합니다. 복합적 성격 유형은 당신은 강점, 정서, 목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 셀그룹에서의 공헌, 약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두려움 등을 묘사함으로 당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해 줍니다. 다른 사람과 차이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당신의 복합적 성격 유형 그래프

D	주도형	I	감화형
	 <p>설립자(64-65)</p>  <p>영향력 있는 자(68-69)</p>  <p>달성자(58-59)</p>  <p>결론짓는 자(50-51)</p>  <p>디자이너(60-61)</p>	 <p>납득시키는 자(54-55)</p>  <p>격려자(48-49)</p>  <p>충고자(72-73)</p>	 <p>현실주의자(70-71)</p>  <p>판사(76-77)</p>

S	안정형	C	신중형
			

□ 당신의 복합적 성격 유형 그래프

I/D	격려자, 전달자, 설득하는 자
<p>일과 사람을 통합하는 리더다. 외향적이며 누구에게라도 관심 갖기를 좋아하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게서 칭찬, 존경,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해야 할 일을 전달하고 지시하는 중에도 친근한 분위기를 이끈다. 작은 일에 부주의할 때가 있다. 충동적일 때가 있으며, 열정이 지나치거나 칭찬을 과하게 한다. 동기 부여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신이 책임자라고 이야기한다. 식상한 것을 거부하며, 명성을 얻는 것과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료를 수집할 때 일의 능률이 오른다.</p>	

D/I	결론짓는 자, 행하는 사람, 결과 지향적인 사람
<p>강요를 하거나 지배적인 입장에 처할 때가 있다. 그래서 강한 개인주의자가 될 소지가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호기심이 많은 편이며 매사에 관심이 많다. 문제 해결에 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예리하게 판단한다.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리더로서 훌륭한 면도 있지만 무엇인가에 중압감을 느끼면 냉정해지고 무뎠뎠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을 비하하기도 한다. 도전정신이 투철하고 강한 영향을 미치기를 좋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동기 부여하는 것에 탁월하다.</p>	

S	기술자, 전문가, 안정적인 사람
<p>환경이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한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고 조심성 있게 행동한다. 그러므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 인내심이 강하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느리지만 선택적으로 친구를 사귀려는 경향이 있다. 반복되는 일에도 실증내지 않으며 매뉴얼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변화가 시작되면 예전의 방식을 청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대결을 회피하며 그들의 분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잘 삭이는 편이다. 압박을 받을 상황에도 적극적이기 보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p>	

D/I	결론짓는 자, 행하는 사람, 결과 지향적인 사람
<p>강요적이고 지배적인 이 성격 유형은 강한 개인주의자가 될 소지가 있다. 그들은 앞을 내다보며 전진해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한다. 호기심이 강하고 관심의 영역이 넓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고 예리하고 비평적이다. 대개 그들은 상상하기 좋아하고 색다른 생각을 한다.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압력이 가해졌을 때, 차갑고 무뎠해지기 쉽다. 기준을 높게 잡으려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권위와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며, 누구에게라도 영향을 미치기를 좋아한다.</p>	

□ 성경 인물, 구절, 인물 묘사

【 바나바 】

- 성경구절: 행 4:36-37, 9:26-27

- 인물묘사: (큰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흥미로운 사람은 구브로의 요셉입니다. 그는 관대하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너무 격려를 잘해서 별명이 “격려자(Son of Encouragement)” 였습니다. “바나바” (행4:36-37)란 아랍어로 격려자란 뜻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거절한 자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울(가장 큰 교회 핍박자)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함께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그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행9:26-27).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사도 바울(사울에서 바뀐 이름)의 이름을 들어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 사도 바울 】

- 성경구절: 행 11:25-26, 13-14; 11:30; 12:25; 13:2, 7과 행 13:43, 46, 50;

14:2, 23; 15:2를 비교해 봅니다.

- 인물묘사: (큰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바울은 바나바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 그를 기독교 지도자로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행 11:25-26).

바나바는 또한 바울을 데리고 전도 여행도 하였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그들은 많은 곳에서 설교했으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행 13-14장).

바울은 강한 지도자였는데, 바울의 지도력 은사는 곧 바나바의 지도력을 능가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왔지만,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비교: 행 11:30; 12:25; 13:2, 7과 행 13:43, 46, 50; 14:2, 23; 15:2)로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후에 그런 성격이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하는 데 쓰였습니다. 바울은 균중을 움직이는 법을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는데, 설교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그의 책 대부분이 감옥에서).

【 요한 마가 】

- 성경 구절: 골4:10; 행 13:13; 15:36-39; 몬 23:2; 딤후 4:11; 뱀전 5:13

- 인물묘사: (큰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요한 마가는 신약 성경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젊은이로서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골 4:10).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또 다른 여행에서 그를 합류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합니다(행 13:13; 15:36-39). 나중에 바울은 동역자로서 마가 요한에게 따뜻하게 말해 줍니다 (딤후 4:11). 사도 베드로는 그를 "내 아들"이라고까지 말 합니다(벧전 5:13). 성경은 요한 마가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매우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바울을 크게 도와주었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또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묘사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질문1>

- 각 인물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선정하여 어떤 성격의 스타일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 바울과 마가가 바나바와 관계를 맺으므로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 바나바와 마가가 바울과 관계를 맺으므로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와 관계를 맺으므로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 무엇을 배웠습니까?

- 당신의 복합적 성격 유형은 무엇입니까?

- 당신에게 어떤 영적인 강함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 소명을 이루는 데 당신의 강점과 영적인 강점이 어떻게 당신을 돕고 있습니까?

제 4 과 교회를 바꾸고, 일터를 바꾸자

□ 의사소통을 위한 조언

D	당신이 ... 할 때, D 수치가 높은 사람은 좋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보다 대상을 물을 때 · 결과를 중요시 하는 경우 ·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때는 핵심, 계기, 최종 결과를 이야기해 줄 때 · 문제 해결을 위해 방법을 제안하려 할 때 · 좋은 생각을 말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오는 유익에 초점을 둘 때 ·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사실을 이야기하며 동의를 구할 때 · 결과를 중요시하며 토론할 때
	당신이 ... 할 때, D 수치가 높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서 없이 말하거나 반복해서 말할 때 · 해결책 없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때 · 일반화시킬 때 · 근거 없이 말할 때

I	당신이 ... 할 때, I 수치가 높은 사람은 좋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군가의 감정을 묻고 답하는 시간일 때 · 당신의 좋은 생각을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일 때 · 그들이 이룬 것들에 대해 칭찬할 때 ·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를 줄 때 · 당신이 그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 자세한 사항들을 일일이 잘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을 때 · 친절하고 상냥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야기할 때
	당신이 ... 할 때, I 수치가 높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가 길어질 때 · 서로 사귀는 시간이 침해당할 때 · 그들의 좋은 생각들과 이룬 것들에 대해 무시당할 때 · 해야 할 임무를 말할 때 · 구체적이고 자세한 일들을 지시할 때

S	당신이 ... 할 때, S 수치가 높은 사람은 좋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나타낼 때 · 상황에 맞는 임무와 역할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황일 때 · 마음을 다해 호의에 감사를 표할 때 · 상황의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도록 시간을 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생각들을 제시하고 나눌 때 · 서로의 이야기에 잘 반응할 때
당신이 ... 할 때, S 수치가 높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일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할 때 · 점점 일의 성과를 요구할 때 · 대립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때

C	당신이 ... 할 때, C 수치가 높은 사람은 좋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당신의 생각을 말할 때 · 자신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할 때 · 설명이 길어지지만 인내를 가지고 경청하며, 이야기를 잘 이끌어갈 때 ·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 · 그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인정할 때 ·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감없이 이야기할 때 · 논쟁이 일어날 때 찬반의 모든 경우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 	
당신이 ... 할 때, I 수치가 높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할 때 · 정확한 잡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 할 때 	

-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 교회에서의 성격 유형

D 수치가 높은 성도인 경우

- 그룹에서 활동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즉각 얻기 원한다.
- 집단 생활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 기부금을 조성하는 일, 기획하는 일, 전도활동이나 행정을 하는 등의 치밀한 일을 선호하고 앞장선다.

I 수치가 높은 성도인 경우

- 기분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 동참하기로 한 것에 거절하거나 반대의 의견을 낼 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에 앞장서서 동참한다.
- 다른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하도록 호응을 잘 유도한다.

S 수치가 높은 성도인 경우

- 그동안 지켜온 전통에 의해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타인을 평가한다.
- 늘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 기도하는 자리에 혹은 찬양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만, 그 자리에서 인도하는 것은 거절한다.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잘 도우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자청한다.

C 수치가 높은 성도인 경우

-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꿈꾼다.
- 심한 완벽함이 다른 분야에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발전한다.
- 프로그램이 착실하게 진행되면 안정감을 느낀다.
- 모든 행사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행사 후에는 평가회를 갖는다.

□ 그룹에서 효과적인 관계 세우기

아래 표를 작성하여 서로 나누며 보완해 가야 할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름	
	<input type="checkbox"/> 성격유형: <input type="checkbox"/> 상호작용을 위한 나의 주된 성격 유형: <input type="checkbox"/> 나는 그/그녀의 ... 강점을 인정한다: <input type="checkbox"/> 내가 약할 때 그/그녀는 어떻게 강한가? <input type="checkbox"/> 오해를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내가 그/그녀를 도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부록2-1> 세미나 설문조사 양식(전면)

DISC세미나 설문조사

건강한 관계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낀 그대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다음 세미나 준비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 각 항목에서 네 가지 번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미나가 내 신앙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2) 세미나가 내 사회 생활에 유익을 주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3) 세미나를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4) 강사들의 강의에 만족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5)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6) 세미나를 통해 그룹의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부록2-1> 세미나 설문조사 양식(후면)

(7) 세미나 후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8) 세미나 후에 관계 형성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9) 세미나의 내용을 교회 밖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10) 세미나 후에 교회 생활이 기다려진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11) 세미나의 전체 만족도를 평가한다면?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9. 10.

(12) 이 외의 다른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싶다.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13) 세미나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3-1> 세미나 전 설문지 통계결과

세미나 전 설문지(1) 통계결과

*응답자: 73명

번호	내용	정말그렇다			대체로그렇다		그저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무응답
		10	9	8	7	6	5	4	3	2	1	
1	이 세미나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56명/76%			16명/23%		0		0			1명/1%
2	나는 자신의 성격유형을 잘 알고 있다.	37명/50%			30명/42%		6명/8%		0			0
3	나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유형을 잘 알고 있다.	14명/20%			41명/56%		14명/20%		0			0
4	나는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7명/10%			12명/16%		17명/23%		35명/48%			2명/3%
5	나는 나의 가족들(배우자)에게 나의 스타일을 고집한다.	9명/12%			21명/29%		21명/29%		19명/26%			3명/4%
6	나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명/6%			7명/10%		19명/26%		42명/58%			0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편이다.	2명/3%			8명/11%		21명/29%		39명/53%			3명/4%
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편이다.	2명/3%			6명/8%		24명/33%		40명/55%			1명/1%
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편이다.	4명/6%			12명/16%		27명/37%		27명/37%			3명/4%
10	이런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17명/23%			8명/12%		4명/6%		40명/55%			3명/4%
11	나는 나의 성격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9명/12%			29명/40%		26명/36%		6명/8%			3명/4%
12	이 세미나를 통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록3-2> 세미나 후 설문지 통계결과

세미나 후 설문지(2) 통계결과

*응답자: 75명

번호	내 용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0	9	8	7	6	5	4	3	2	1	
1	이 세미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57명/77%			16명/21%		1명/1%		1명/1%			
2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56명/75%			17명/23%		1명/1%		1명/1%			
3	이 세미나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62명/83%			11명/15%		0		1명/1%			1명/1%
4	강사의 준비가 충실했다.	61명/81%			14명/19%		0		0			
5	강사가 열의와 성의를 갖고 충실히 강의했다.	61명/83%			13명/17%		0		0			
6	강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	62명/83%			10명/14%		1명/1%		1명/1%			1명/1%
7	세미나의 내용은 나의 삶 속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58명/78%			15명/20%		1명/1%		1명/1%			
8	조원들 간의 나눔이 잘 이루어졌다.	53명/71%			15명/20%		5명/6%		2명/3%			
9	세미나 도우미들의 서비스와 친절이 좋았다.	65명/87%			9명/12%		0		1명/1%			
10	내용을 전하는 데 시간이 충분했다.	39명/52%			21명/28%		12명/16%		1명/1%			2명/3%
11	전체 진행이 원만하여 세미나 중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51명/68%			17명/23		1명/1%		2명/3%			4명/5%
12	세미나 중 불편을 느꼈다면 어떤 점에서 불편을 느끼셨습니까?											
13	본 건강관 관계 세우기 세미나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14	세미나를 주관하는 위원회에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혹은 감사들에게.....)											

참고문헌

국내서적

김도일 책임편집, 『미래시대, 미래세대, 미래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6.

김혜숙 외 4인, 『인간관계론』 서울: 양서원, 2008.

노중균, 『인간관계론』 서울: 산문출판, 2009.

박학규, 『한국교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1995.

서철원, 『인간, 하나님의 형상』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설은주. 설영주, 『성숙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 서울: 도서출판 샬롬, 2005.

오덕호, 『사랑하기 원합니다』 광주: 서석출판사, 2005.

유기현, 송병선, 권용만, 『인간관계론』 서울: 무역경영사, 2008.

유수현 외 4인, 『인간관계론』, 파주: 양서원, 2009.

유영창, 『하나님의 사인』 서울: 콤파출판사, 2021.

윤대혁, 『인간관계론』 서울: 삼영사, 2004.

이재열, 『생활속의 인간관계론』 서울: 북코리아, 2009.

이창준, 『재미있는 사람읽기: DISC를 활용한 유형별 공략법』 서울: 구루북, 2002

장성화, 『쉽게 풀어 쓴 인간관계론』 서울: 동문사, 2009.

정병운, 『치유목회에 있어서 목회자의 인간이해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2.

조선화 외 7인, 『인간관계론』 서울: 교문사, 2007.

홍광수, 『기질로 읽는 내 삶의 프로파일』 서울: 도서출판 NCD, 2009.

목천교회 2015년 정책당회 자료집

목천교회 2023년 정책당회 자료집

번역서적

국제터치본부, 『건강한관계 세우기 소그룹 워크북』 정세광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9

메릭 로젠버그, 『사람을 읽는 힘 DiSC』 이미정 역, 서울: 베가박스, 2013.

윌리엄 J. 디엄,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 박우석 역, 서울: 프리셉트, 1998

Tom Marshal, Right relationships: A Biblical Foundation for Making and Mending Relationships, 『관계-축복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 채병두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9.

Robert A. Rohm, Positive Personality Profiles, 박옥 역, 『성격으로 알아보는 속시원한 대화법』 서울: 도서출판 나라, 2005.

학위 논문

강휘규,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를 연결하는 전인적 세대통합교육공동체 사역을 위한 연구 :서울목천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24.

김민희,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관점에서 본 축제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21.

홍수연, 『관계회복 활성화를 통한 전통적 교회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2019.

학술 논문

임성빈, “21세기의 문화와 청년”, 『21세기 문화와 청년목회상담』 (서울: 장신목회상담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0.

신문, 인터넷

중랑구 홈페이지 www.jungnang.go.kr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www.data.seoul.go.kr

<https://v.daum.net/v/20231106083306126>" 일평균 이용자 20명도 안돼"...상봉터미널 '폐업' 「YTN」 2024. 1. 24.

<https://data.seoul.go.kr/dataList/10020/S/2/datasetView.do>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고령자 현황 「서울특별시」 2023. 7. 19.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Woong Heo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Mar. 06,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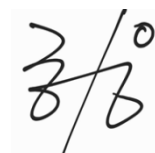
Parent`s Names: Jongpil Heo and Eunyoung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Name	Address	Degree	Date
Seogang High School	1, Seogang-ro, Buk-gu, Gwangju, Korea	Dipoloma	Feb. 16, 1997
Chosun University	146, Chosundae-gil, Dong-gu, Gwangju, Korea	B. A.	Feb. 25, 2004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77, Jejung-ro, Nam-gu, Gwangju, Korea	M. Div.	Feb. 12, 2008
Soongsil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	369 SangDo-no, DongJak-gu, Seoul-Si, South Korea	Th.M.	Aug. 22, 2014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W. Heo', written on a light gray rectangular background.

Woong Heo

Name typed

Feb 7. 2024

Date